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美,自由貿易주의 강력推進

웨인덴바움 美대통령經濟諮問會議長 밝혀

韓國産 섬유·철강·TV등 規制에"놀라움"…協商시사

各國 지나친 輸出支援,美産業 위협받을때만 對應

本社 朴炳潤특파원 單獨인터뷰

【워싱턴16日=朴炳潤특파원】 保守主義 성향이 짙은 레이건行政府는 보호주의무역을 강화할것이라는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自由貿易主義를 실천하려 노력하고있다. 레이건行政府의 경제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머레이·웨이덴바움 大統領經濟諮問會議의장은 16일(한국시간)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行政府內에서 자유무역의 旗手노릇을 하고있다』고 전제하고 『自由貿易원리를 관철키위해 어떤 투쟁도 서슴지 않겠다』고 말했다.

◇本社記者와 單獨회견하는 머레이·웨이덴바움美 대통령經濟諮問會議議長.

그는 이어 미국의 노동자나 미국의 企業家들도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나라의 보호주의가 미국의 수출신장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특정수출국이 과도한 수출지원을 통해 미국의 산업과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여기에 相應한 대응책을 강구할수밖에 없다고말하고 미국은 자유무역원칙을 具現하기위해 양국간의 협의나 多者間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웨이덴바움議長은 이어 對韓무역정책에언급, 전섬유류, 철강재, 컬러TV등 한국의 주요수출상품 12개品目이 미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있고 對美輸出의 46%가 수입규제에 걸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미국은 보호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레이건 大統領이 국내일부의 수입규제강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및대만産 신발류규제를 해제한것은 자유무역정신을 신봉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전하면서 미국은 다른나라가 미국상품수입을 규제하는데 더큰관심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웨이덴바움議長은 또 레이건행정부는 對外무역뿐 아니라 國內경제정책에서도 정부의 간섭을배제하고있다고 말하고 내년에있을 새로운3개년임금인상 문제를놓고 어려운 협상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결코 勞使협의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원칙은 국무성의 貿易담당副次官補및 대통령실 通商代表部실무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거듭확인됐다.

◇朴炳潤특파원

한편 웨이덴바움議長은 미국경제의 장래에대해 언급, 대통령이 제안한 租稅및예산삭감안이 議會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경제는 4·4분기부터 活性化되어 금년중2·6%, 내년부터 90년까지는 4~5%의 정상적인 成長페이스를 유지하고 物價는 금년중10%이하 82년에는7%, 83년부터는 5%線으로 안정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失業率은 81년에7·5%, 그이후는 점차 好轉되고 이자율도 물가가 안정됨에따라 점차 하락할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달20日 韓日外相회담

東京서 사흘간 頂上회담·逆調등 논의

盧信永 외무장관은 오는 8월20일부터 3일간 東京에서 소노다(園田直) 일본외상과 韓日外相회담을 갖는다고 16일 외무부가 공식발표했다.

소노다外相의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회담에서는 오는 9월의 韓日정기각료회담과 금년말로 예상되는 양국 頂上회담의 議題및日程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오갈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회담에서는 특히 韓日간에 累積된 交易赤字의해소방안, 한반도를 비롯한 東北亞안보에 대한 양국간의공통이해등이 아울러 협의될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日側으로부터 요청이있을경우 全斗煥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巡訪에 대한 정부측의 구체적인 평가와 의의에대해 일본측에 설명하게 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韓日외상회담은 당초 지난달 4일 개최키로 양측이 합의했으나 美日정상회담에서 비롯된 美日양국간의 「非核논의」와 소노다外相의 재취임등 日側국내외사정으로 8월말로 연기됐었다.

盧장관은 訪日기간동안 스즈끼(鈴木) 日수상을 예방하며 이번 회담에는 정부측에서 崔東鎭외무부亞洲局長, 金庚哲同통상국장등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2면

議員聯盟 日側일행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6일상오 청와대에서 韓日의원연맹의 야스이·겐(安井謙) 일본측회장일행 8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야스이회장은 이자리에서 韓日頂上회담을 가능한한 일찍개최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스즈끼(鈴木善幸) 일본수상의 뜻을 全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리에는 韓日의원연맹 金潤煥 한국측간사장과 마에다(前田利一) 駐韓일본대사가 배석했다.

마하티르 말聯首相 就任축하 電文보내

全斗煥 대통령은 16일 마하티르 신임말레이지아수상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電文을 보내 『우리양국은 계속 긴밀한 유대를 통해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리라고 믿으며 특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공헌할수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民正黨5役 접견 아세안巡訪 설명

全斗煥 대통령은 16일상오 청와대에서 民正黨의 李載灐대표위원 王相殷중앙위의장 權正達사무총장 李鍾贊원내총무 李珍雨정책위의장등 黨5役을 맞아 아세안巡訪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旗 高校농구 全대통령內外 觀戰

全斗煥 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가 16일 하오4시45분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충체육관에 나와 남고부 준준결승전인 大邱啓聖高와 光州商高의 대전, 여고부 준준결승인 淑明女高와 崇義女高의 경기를 관전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政務제2長官에 盧泰愚씨

全대통령 任命 安保·外交문제 담당

◇盧政務제2長官

全斗煥 대통령은 16일 政務제2장관에 盧泰愚前국군보안사령관(예비역육군대장)을 임명했다.

신임 盧장관은 안보외교문제를 담당하게된다고 이날李雄熙 靑瓦臺대변인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오는18일상오 신임盧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로써 정부조직법상 3명까지 두게되어있는 政務장관중 2명이 채워지게되었다.

신임 盧장관은 지난 11일 육군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했고 15일 轉役式을 가졌다.

제5공화국 탄생의 핵심적 역할을해온것으로 알려진 盧장관의 入閣은 정치적으로큰 의미를 갖고있는것으로 관측된다.

盧장관의 入閣은 그가 각료로서 國政에 참여, 폭넓은경험을 쌓게하기위한 고위층의 배려인것으로 政街에서는 풀이하고있다.

◆盧제2政務長官 略歷 ◆慶北大邱출신·49세 ▲陸士卒(11기) ▲陸軍大學졸업 ▲空輸旅團長 ▲大統領警護室作戰次長補 ▲師團長 ▲首都警備司令官 ▲國軍保安司令官 ▲陸軍大將豫備

中共에 武器판매때 한국등과 情報교환

홀드리지次官補

【워싱턴15日=黃淳煥특파원】 홀드리지 美국무성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차관보는 미국이 중공에 무기를판매할때는 아세안5개국, 한국및 일본에 단순히 이를통보하는 단계를넘어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정보와 아이디어를 신중히 교환하는 방식의 충분한 협의를 할것이라고 15일 미상원외교위 아시아·태평양小委에서 증언했다.

오늘 停戰委本會議

군사정전위원회 제4백6차 본회의가 17일상오 11시 板門店에서 열린다고 유엔군사령부가 16일 발표했다.

國會 20日소집 難關에

3黨總務 議題이견 民正"合意사항白紙化"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16일하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제108회 임시국회召集을위한 세번째 회담을 가졌으나 議題문제에대한 여전한 異見으로 타결을 보지못해 당초 제1차회담에서 합의했던 20일 召集은 어렵게 되었다.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그동안 爭點이되어온 본회의對政府질문의제중 아세안巡訪관계외에 經濟등을추가하는 議題擴大문제는 保留한채 먼저 常任委를열어 案件을 처리한뒤 그결과 필요가있으면 本會議소집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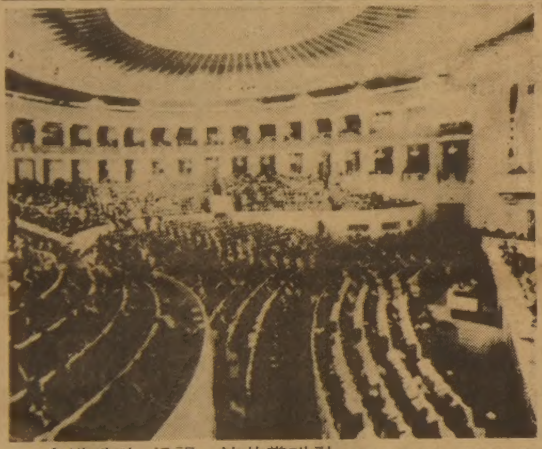
그러나 民韓黨의高在淸,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는 이에대해 『常任委를 먼저 열자는것은 慣例에 어긋나는것일뿐더러 民正黨이 기본적으로 본회의를 기피하는 자세로볼수밖에 없으며 本회의의제를 擴大하지 않겠다는 뜻으로생각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異見에도 불구, 民韓·국민당은 각常委에서 다룰만한 案件을 국회운영위원장인 李鍾贊 民正黨총무에게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상오10시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절충을 벌이기로 했는데 國會法은 임시국회 소집시 3일전에 公告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합의했던 20일 임시국회召集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民正、經濟立案위해 經濟團體 개별懇談

民正黨은 경제관계 정책의 개발立案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한국무역협회등 경제단체들과 연쇄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세계가 注視…波共黨대회 폴란드공산당 제9차 임시전당대회가 文化·科學宮에서 열리고있다。【바르샤바14日UPI=聯合】 ★기사3面

"캄問題 평화解決을"

한국、유엔에서 國際政治 첫發言

【유엔본부15日=金泰雄특파원】 한국은 유엔업저버로서의 전통을깨고 유엔에서계속되고있는 캄보디아문제토의에서 한국의 입장을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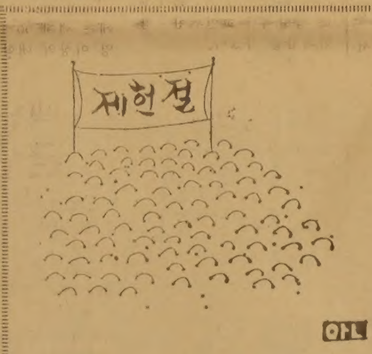
한국이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아닌 다른나라의 정치문제에 대해 발언을한것은 유엔외교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13일부터 미국과 중공등 88개국이 참석, 캄보디아문제를 토의하는자리에서 尹錫憲주유엔대사는15일하오『캄보디아문제의조속한해결을위해 유엔원칙이 준수돼야하며 유엔총회결의35/6에따라평화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尹대사는 최근 全斗煥 대통령이 동남아를 순방했을때 캄보디아 문제를 정당하고 공평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아세안5개국의 노력을 적극지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회의가 대화와 협상을통해 만족스러운 결을향한 뜻깊은 긍정적인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떤나라라도 대화하기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어떤 나라도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 공헌하기를 꺼려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한 尹대사는 문제의 해결을위한 보임에 동참하는나라가 될것을 희망했다며 유감의 뜻을표명했다.

社会漫評



오늘하루「감개무량」한 기분으로…

制憲議員등 위로 全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제34주년 제헌절을맞아 15일 제헌의원 가운데 생존해있는 48명과제헌국회의장을지낸 李承晩전대통령, 申翼熙전국회의장의 미망인을 서울시및市·道관계관들이 방문, 이들제헌의원들이 건국사업에 미친 공로에대해 치하의 뜻을 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朴英秀서울시장은 이날 초대국회의장을지낸 李承晩전 대통령의미망인 프란체스카여사를, 李相淵서울시제1부시장은 申翼熙전국회의장의 미망인인 金해와여사를 직접방문, 全대통령의 이같은 뜻을 전했다.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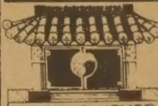
美姬수십명이 全裸의 모습으로 물속의 금은보화줍기를 했다면 무슨 외국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같다. 무대가 서울洗劍亭골짜기, 시대는 4백50년전, 주인공은 이조10대왕 연산군이라고 하면 깜짝놀라겠지만 나이 많은분들은 燕山君의流頭놀이구나 하는 짐작이 간다. 수십명의 궁녀들과 수중쇼를 벌이던 연산군은 금은보화를 물속에 마구던지고 자기자신도 옷을벗은채 광태를 부렸던것이다. 그러나 流頭는 성스러운 우리의 명절이지 놀아나는 날이 아니다. ▼어제가 음력6월15일인 그流頭。 옛날엔 이날이되면 여름명절이라 보리수단, 수박참외로 더위를 잊으며 부녀자들은 정릉골짜기로 모여들었다. 太祖의 繼妃 康氏의 陵이름을딴 정릉에는 마침 큰수석이있어 점잖은 부인들마저 너도나도 뛰어들어 물을맞았다. 저고리와 속옷을 그대로 입은채 白布帳으로 주위를 둘러 쌌다. 流頭물맞이를 지금의 海水浴광경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시대적 변천에 놀라게된다. ▼流頭란 東流頭沐浴을 줄인 말이다. 東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감아 不吉한것을 씻어버리는 날이었다. 각가정에서는 정성들여 만든 酒食을 가지고 맑은 東流水로나가 청정한물에 머리를감고 몸을 씻으면서 流頭宴을 벌였고 流頭飮으로 厄을 면한다고 믿었다. 流頭날 먹는 음식은 水團이니 流頭麵이니 하는것으로 밀가루·밀가루 등으로 서늘하게 찬물에탄 꿀물과함께먹었다. ▼한데 洌陽歲時記를 보면 流頭풍속이 마치예날의 溱·洧(鄭나라때 江이름)물가에서보던모습과같다는말이 나온다. 溱洧는 난잡한 세상을 풍자할때 쓰므로 아마도 남녀의 풍속을 말한것같다. 流頭를 핑계삼아 山속과 은물에서 남녀가 노는것을말했음이 틀림없다. 高麗때 금川面浴이란말도 여기서 나온듯하다. 流頭宴, 流頭薦新, 流頭飮—모두 성스러운 것을 말함인데 아무리 규제가 심했던 옛날에도 남녀의 사랑만은 막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요즘 流頭는 佳日이라 家廟에 薦新하고 한때 음식을 겨보세… 호따나를 가지지 못으로 일 있는이여보소 깨끗한 물로 전해 내려온것이 流頭날이다. 바캉스를 맞아 광장이 바닷가로 떠나는 여유들이 올해도 한번쯤은 유두날이 무슨날인지 돌아들아 주기나 했으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16
은 : 온스당 US 8.7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주간女性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유회, 어초회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英語교육 어떻게… ②

均衡잃은 실력…그 손질

토플試驗서 讀解力은 上位

大學敎授도 「반벙어리」많아

영어실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데 토플(TOEFL)은 제 신빙도가 높은 시험제도로 통한다。세계적으로도 그 권위가 공인돼있다。美프린스턴에 본부를 둔 영어평가기구(English Testing Service)가 오랜세월동안 연구를해서 만든 평가방법인데 이시험의 성적은 미국내 대부분의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그대로 통하게돼있다。

우리나라에선 미국유학이나 연수를 원하는 많은대학생과 사회인이 매년 이시험을 치고있다。그리고 그성적은 東南亞圈이나 일본등지보다 그렇게 처지지 않는것으로 돼있다。

토플성적이 수준급이라면 일단 우리 영어 실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다고 믿어도 좋다。그러나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한국사람의 토플성적은 그 총점만 수준급일뿐 예외없이 균형이 심히 깨져있는 불구(不具)의 점수인것이다。

현행토플시험은 3가지 평가분야로 나뉘어져 있다。첫째가 청취력 두번째가 영어구조(文法)、세번째가 독해력이다。그런데 한국 사람의 토플성적은 두번째와 세번째 즉 영어구조와 독해력에서 얻은 점수가 대부분이고 청취력에선 형편없는 성적을 얻고 있는 것이다。

녹음기를 틀어놓고 4지선다형에서 정답을 고르는 청취력평가에서 한국인은 열이면 열 모두 꼼짝못하고있다。문법과 독해력에서 상위10%에 속한사람이 여기에선 하위40%이하로 처지는게 보통이다。이런결과는 가끔 시험을 관장하는 미국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까다로운 문법과 읽기에서 이렇듯 우수한 사람이 어떻게 쉬운말하나 못알아듣는단 말인가』

원서를 마구읽어대면서도 한마디듣지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반벙어리영어교육、해방후 36년간 계속된 그 절름발이 교육방식이 문제의 원흉인 것이다。

「不具영어」를 가지고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가끔 연출하는 사건은 차라리「코미디」에 가깝다。

수년전 작고한 헌법학자韓모교수는 그가 유학한 하버드大에서 천성과는 딴판으로 언제나「과묵하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으로 통했었다고 이곳 강의실에서 털어놓은적이있다。

한스·켈젠의 원서를 언제나 탐독하는 그는 가끔참석하는 세미나는 물론、학교내의 사교적인모임에서조차 입을 여는것을 볼수없다。언제나 위엄만은 갖춘채 조용히 앉아있거나 뒷자석에서 침묵만을 지켰다。가끔 누가 말을 시키면 그는 항상 짧막하게대답했다。

韓교수는「아마 누구도 자신이 영어가 짧아 과묵했었다고는 생각지 못했을것」이라고 단언했다。그가 연구실에서 항상 영어원서는 물론 미국인도 어려운 독어원서를읽어내려간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교수뿐만이 아니다。무역상사의 중역、심지어는 외교관들까지 벙어리가 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현직고위외교관 金모씨는 『국제회의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외교관은 우리와 일본외교관들』이라고 말한다。

정치분야의 회의같은데선 그래도 준비한 텍스트를 읽은후 재 활발한 토론을 벌이지만 大陸棚회의나 식량회의등 전문분야의 회의에선 도리없이 벙어리가 될수밖에없다는 것이다。파티장에 가서도 한쪽구석에 몰려있거나 자국인과 주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사의 중역들이 외국인과 상담을 하는경우「통역을 통한상담」과「직접상담」은그 효과면에서 큰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이다。그러나 비교적 합리적으로 외국어를익힌 30代의 중역이면 모르되50~60代중역 가운데 통역없이 고객흥정을 다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게 우리현실이다。

교수、외교관、회사중역들의 회화능력부족은 단순히 개인적인 곤혹이나 불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이익과 직결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교수요원이나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대학측 카운슬러와 정기적인 대화를 갖게 돼있는게 보통인데 이곳에서 의사소통이 안되면 필연적으로 학업수준이 처지게된다。강의를 제대로 못듣고 때론 그곳 교수가 내는 숙제의범위도 아물아물하다면、학위는 더늦어지고 그손실은 결국 국력의 낭비로 이어진다。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거두는 외교업적은 비교적 낮은것으로 알려져있다。FAO(식량농업기구)같은데서 파키스탄、방글라데시가 상임이사국이 되곤하는판에 우리가 끼지못하는것은 솔직히 말하면 외교관의 회화능력부족때문일지 모른다。모든회의의 선거에선 일종의 선거운동이 있게 마련인데 후진국 대표들이 마구 떠들고 돌아가는사이 우리는 본의아닌 점잖을 빼다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하고많은 문화인들이 로마다、아테네다 해서 문화시찰을 떠나지만 가이더의 영어설명을 못알아들어 결국 시찰효과는 반감되고 돈만낭비하는꼴이 돼버린다。

영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의 부족때문에 일어나는 이같은 손실들。이「손실」을 없애고「이득」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金時福기자】

波、前高位관리 7명 黨서 追放

기에레크등

제1書記 民主방식 선출

【바르샤바15日UPI=聯合】폴란드공산당은 15일 에드바르트·기에레크 前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를비롯한 7명의 전직고위관리를 추방하기로 의결했다。

폴란드공산당은 이날밤 장시간에걸친 토의끝에 현재의 국내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비난을받아온 기에레크와 前수상 에드바르트·바비우치、前부수상 타데우츠·피카、前黨정치국원이자 노조지도자 얀·스치들라크、前공보상 예르치·루카·스제비츠、前 당중앙위서기 즈드지스와프·잔다로프스키、前지구당제1서기 Z·그루드지엔등 7명을 黨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바르샤바15日UPI·聯合=聯合】폴란드 공산당 특별전당대회는 15일 2시간에 걸친 비공개회의끝에 공산국가로는 사상최초로 黨제1서기를 대의원전원이 참가하는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키로결의했다。

黨제1서기의 이같은 선출방법은 대회 이틀째인 이날 2시간동안에 걸친 격론끝에 결정되었는데 회의소식통들은 1천9백55명의 대의원들이 黨中央委가 추천한 일단의 후보들가운데 黨제1서기를 역사상 유례없이 직접·비밀·공개투표에 의해 선출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새黨제1서기는 전당대회가 폐막될무렵 2백명의 확대中央委가선출된다음 이들 中央委員들에의해 추천된후보들 가운데서 선출될것이라고말했다。

비에스와프·베크 黨대회대변인은 黨제1서기의 선출이 17일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대의원수 과반수를 얻는후보가 黨제1서기에 뽑힐것이라고밝혔다。

폴란드관리들은 黨제1서기선출투표에 앞서 새中央委가 선출될것이라고 전했다。

波 共黨대회 延期 가능성

第1書記 8명경합

【바르샤바16日UPI=聯合】2천여명의 전국대의원과 소련등 공산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있는 폴란드공산당 특별대회는 오는18일밤 폐막될예정이나 19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폴란드공산당의 한관리가 16일밝혔다。

이관리는 동구공산당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직선제에 의해 선출될 폴란드黨제1서기직에는 8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것으로 알려졌다。

關節炎 百%치료한다

日、온천장에 異色치료등장

하루14시간 심한 운동시켜

새관절액 솟아 "완쾌"주장

【벳부(別府·日)16日聯合=特】일본서남부 벳부의한 온천장에 류머티즘성관절염을 1백% 완치한다는 치료소가 등장、관심을 모으고 있다。

東京大 물리치료실을 졸업한 야마우찌(40)씨가 3년전에 개설한 이 치료소는 냉각기체와 격렬한 운동을 주로한 요법으로 관절염을 치료하고 있다。

6개월코스인 이 치료소입원비는 월25만엔(77만원)。

환자들은 새벽6시부터 밤9시까지 하루14시간동안 매우 격렬한 운동을해야한다。

1천내지 2천개의 계단기어오르기、굴기、무거운것들기、물속에서 걸어다니기등 성한 사람들도 녹초가될정도로 심한 운동을 계속한다。

심지어 저녁에 잠이 든후에도 침대에 장치된 특수기구로 무릎、허리、궁둥이등의 관절들이 운동한다。

또 다른 새 치료법은 섭씨 1백80도로 냉각된 질소가스를 환부에 쐬는것이다。이요법은 피순환을 자극하고 환부의 고통을 덜어주어 환자들이 걸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잊고 격렬한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치료소측은 말하고있다。

이같은 방법에 의해 환부에 괴어있던 나쁜 관절액이 새로운 관절액으로 바뀌게 되어 치유가 된다는 것이다。

3년전 이 치료소를 개설한 야마우찌씨는 최근 한인터뷰에서 『치료소를 거쳐나간 환자 1천1백명이 모두 완치되었으며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던 환자들중 많은 사람이 퇴원할때는 스스로 걸어나갔다』고 주장했다。

야마우찌치료소의 치료법에 대해 일반의학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있다。

야마우찌의 은사인 東京大 시모또박사는 『내가 치료하다 실패한 환자 3명을 야마우찌치료소에 보냈더니 완치됐다』고 말했으나 영국관절염류머티즘연구소의 한관리는 『야마우찌씨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학잡지에 보고된바도 없으며 과학적근거를 갖지않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世界의 社說

휴젤事件、생소한일 아닐것

●워싱턴·포스트(美·15日字)

사람을 경솔하게 기용한것은 중앙정보국(CIA)이 그 첫번째 케이스는 아니지만 CIA는 다른 어느부서보다 매사를 신중히 처리해야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공무와는 관계없는 사업상의 곤경으로 CIA의 요직에서 물러나게된 대외공작책임자 맥스·휴젤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수있다는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수있는 일이다。

휴젤씨가 겪은 사업상의 곤경은 증권거래위원장을 지낸 케이시현CIA국장에게도 생소한 일이 아니며 휴젤씨와 같은 문외한이 어떻게 CIA요직에 기용되었는가하는 의문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있다。따라서 휴젤씨의 사임은 문외한을 국가의 정보요직에 앉힌 어리석음에 대한 변명으로서 일견 환영을 받고있기도 하다。

金利낮추게 美國에 壓力

●데일리·익스프레스(英·15日字)

곧 열릴 오타와 서방선진국경제정상회담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美國의 현금리를 낮추도록 하기위해 많은 나라가 미국에 압력을 가하게될 것이다。

우리는 레이건대통령이 인플레퇴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삼고있는데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기는 하나 미국의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단기자금이 뉴욕에 몰려들어 결국은 자유세계의 통화불안을 야기하는 결과를 빚고있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는것이다。서방경제가 상호 교호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인플레나 경기침체를 막으려는 노력은 서방의 공동목표이다。

캄보디아문제 國際會議

中共·아세안 不和심각

◇組閣요청 수락하는 베긴수상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右)이 이츠하크·나본 대통령으로부터의 組閣요청을 수락하고 있다。【예루살렘15日AP電送=聯合】

유엔平和軍 파견希望

「크메르」武裝해제反對

中共 아세안

【北京15日UPI=聯合】중공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현재 뉴욕서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심각한 불화를 드러냈다고 北京주재 외교소식통이 15일 말했다。

중공과 아세안은 최근 몇달동안 캄보디아 문제에 관해 공동보조를 취해왔으나 이회의에서 뜻밖의 견해차가 대두됐다고 서유럽의 한 외교관이 밝혔다。

이 외교관은 현재 중공과 아세안관계엔 심각한 이견이 있으며『이는 결국 아시아의 전략균형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있다』고 말했다。

아세안은 베트남이 20만 캄보디아 주둔병력을 철수할 경우 캄보디아내의 크메르·루지 게릴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유엔평화유지군을 캄보디아에 파견하길 원하고있는반면 중공은 그들의 무장해제에 반대하는한편 크메르·루지를지원하고있는 문제는 캄보디아 국민스스로가 외부의 간섭없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고 이외교관은 지적했다。

캄事態 協商통해 해결

유엔國際會議 내일 공식宣言채택

【뉴욕15日UPI=聯合】유엔주관하에 현재 뉴욕에서 개최중인 캄보디아문제 국제회의는 17일 폐막하기앞서 캄보디아사태를 협상을통해 정치적으로 타결키위한 일련의지침을 明記한 공식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5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아세안 5개회원국들이 이미 평화와 중립의 새캄보디아정부를 수립키로한 국제협상의 토대로서 16개항의 잠정적 지침을 마련、이 결의초안을 결의안 작성실무위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아세안은 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 20만을 철수시키는데 대한 베트남측의 동의가 앞으로의 캄보디아문제 협상타결의 열쇠로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共、人民公社 철폐推進

農工商聯合公社·鄕政府로 대체

홍콩紙보도 79년부터 준비

【홍콩15日=聯合】중공의 小平체제는 지난50년대말 毛澤東당주석의 급진적인 사회주의체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人民公社의 전면철폐계획을 추진중이며 시범적으로 지난80년11월에 이미 四川省 廣漢縣 向陽人民公社를 해체한사실이 확인됐다고 15일 홍콩의 석간 工商晩報가 중공의 한경제誌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工商晩報는 중공의 일간경제지인「經濟管理」를 인용、向陽인민공사의 해체가 지난79년9월부터 시작됐다고 전제하고 向陽인민공사는 80년4월 과도적으로 농공상연합공사로、공산대대는 행정촌으로、그리고 공산소대는 농업생산합작사로 각기 개편됐다가 11월 向陽인민공사의 해체가 정식발표되고 대신 중공당 鄕위원회의 지도아래 鄕政府와 農工商연합공사가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四川省 廣漢縣소재의 向陽인민공사의 해체는 중공의 현수상 趙紫陽이 당시 四川省黨위원회의 제1서기로 있으면서 단행한 사실이 주목된다고 이신문은 지적했다。

인민공사의 철폐문제는 당초 지난79년9월 중공당내경제책임자인 중공 黨중앙부주석 陳雲이 黨중앙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한데 이어 79년11월 光明日報와 80년10월 홍콩의 大公報가 기업인민공사의 모순과 不利를 지적하면서 개편을 주장했었다。

케이시局長 留任바라

레이건 裁判敗訴불구 계속信任

【워싱턴15日AP=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지난 60년대에 사업거래를하면서 그릇된 정보를 유포、투자가들을 誤導했다는 연방지법판결을 받고있는 윌리엄·케이시美중앙정보국(CIA)국장을 전적으로 신임、계속 유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백악관관리들이 15일 말했다。

中共수상 趙紫陽 東南亞 3國방문

【北京16日新華=聯合】중공수상 趙紫陽은 오는8월6일부터 10일동안 필리핀 말레이지아 싱가포르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3개국순방에 나선다고 北京의 믿을만한 외교소식통이 16일 말했다。

趙紫陽은 금년2월 이미 태국과 인도네시아를방문했었다。

아프간 政府軍 1개聯隊 투항

카불北方 주둔兵力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15日AP=聯合】아프가니스탄수도 카불북방 64㎞지점에 있는 카리카르마을에 주둔해 있던 아프가니스탄정부군의 1개연대가 3주전 아프간叛軍에 집단으로 투항했다고 서방외교소식통들이 15일 밝혔다。

이 주장이 사실일경우 이는 지난79년12월 소련의 아프간침공이후 가장 대규모적인 아프간정부군의 투항중 하나가 되는 것인데 아프간정부군의 1개연대는 원칙적으로 5~7백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정원의 40%가량의 전력밖에 보유하고 있지못한실정이다。

메아리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어야 한다는 名言이 있다。미국 이민생활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은 대개 세가지로 집약되는것 같다。영어·전장·기술이다。

이민생활의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첫장벽이 언어장애라고 한다。미국에 정착한 한 재미동포가 모국에 잠시 들어 왔을때 들려준 이야기는 허망스럽기만했다。몇년전 한 이민동포가 살고있던 아파트에 불이 났다。황급하게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말이 제대로 통하지가 않았다。결국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고 애써 모아온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한국인의 서투른 영어를 우스갯 말로「콩글리시」라고 한다。바로 이 콩글리시가 엉뚱한 불행을 초래한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재미동포의 다음 말은 몇번이고 되씹어 볼만 하다。「영어공부엔 지름길이 없다。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초부터 다져가는수밖에…」

듣고 말할수 있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의견과 妙案이 백출하고 있는 요즘이라「산 영어」에관한 百家爭鳴이라는 느낌까지 든다。해묵은 아이디어인 영어조기교육론부터 입학고사에「회화 실력 반영론」까지 들먹였다。

산英語 百家爭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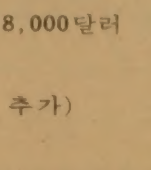
교육은「百年大計」라는데 아무래도 일을 서두르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지름길이 없는 외국어교육에서 마치 화학실험 반응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될줄 안다。

오늘의 병폐로된 외국어교육은 그 원인이 해방후부터 이어진 교육방법에 있다。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르고 있는것도 아니다。현실적인 여건이 구비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것이다。

국민학교에서의 조기교육이라는 이상론은 좋지만 누가 그들을 가르칠것인가 하는 단순한 문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이보다 먼저 우리말교육이 과연 제대로 되고있나하는점도 반성할일이다。자기것에 충실하지못하고 남의것을 배운다는것은「자아상실」을 가져올 위험이있다。

당장은 외국어교육개선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다。여기서 장·단기 대책이 마련되겠지만「졸속」은 꼭 피해야 하겠다。우선 시급한대로 중·고 영어교사의 국내외연수강화와 필요한 직장에서의 외국어 강좌에 중점을 두는 응급책을 펴가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FRANCHISE베이커리



총 투자액 95,000달러
DOWN PAYMENT 40,000달러
융자액 55,000달러
※자신이 없는분에 대해서는 년봉 18,000달러 개런티(한사람일 경우)
(Wife가 같이 일할 경우 8,600달러 추가)
(부부 총계 26,60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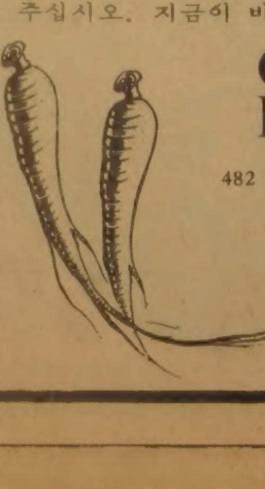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大中華藥材行

건강관리에
녹용과 인삼을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 — 8858 ~ 9

美에 女性엔지니어 크게 增加

'男性전유물' 固定觀念 무너져

美國에는 최근 여성엔지니어들이 눈에띄게 늘고있다. 대학캠퍼스나 직장의 공학분야에서 여성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 엔지니어링 분야를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기던 고정관념은 소리없이 무너져가고있다.

이같은 변화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이에 힘입은 맹렬여성들의 줄기찬 노력으로 가능해졌다.

여성 엔지니어를 무조건 무시하고 잘봐줘야 직장의 꽃정도로 평가해왔던 사회적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분야로 진출하는 여성의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여성 엔지니어협회 회장보니·먼버에 의하면 지난67년에 여성들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원의 1%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3%에 이를만큼 신장됐다고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에 工業을 전공하고있는 여학생은 전체의 15~20%를 차지하고있다고한다.

앞으로 이들이 졸업후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이같은 증가추세는 더욱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먼버회장은 덧붙였다.

이같은 여성의 활발한 진출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수있다.

고용기회의 확대와 의식구조의 변화등이 여성의 엔지니어링 진출을 촉진했기때문이다.

67년1%에서 최근엔 3%로

사실 경영주들이 여성엔지니어를 보는눈에 변화가 없었더라면 지금과같은 여성들의 대량진출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70년대 중반기까지만해도 여성엔지니어들을 고용하기 꺼렸던 기업가들은 70년대후반부터 이같은경영방침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능력있는여성엔지니어를 뽑는데 주저치않았다. 왜냐하면 여성엔지니어의 고용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능률을 올리는데 오히려 플러스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대기업 하니웰회사의 인사담당책임자는 다음과같은 말로 기업의 자세변화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지금 붐을 이루고있다. 모든 능력있는 남자들에게 우리회사는 고용의 문을 열어놓고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 문이 좀더 활짝 열려있는게 사실이다.』

이같은 추세라도 반영하듯 지난 주 디즈닐랜드호텔에서 열렸던 여성엔지니어협회총회장에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인사담당 책임자들이 대거참여하여 스카웃경쟁에 열을 올렸다.

총회에 참석한 여성대표들은 한결같이 여성을 경시하는 전통적인 교육방법 때문에 여성들의 엔지니어링 진출이 지연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학교교육이 여학생들은 과학이나 수학에 치중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여학생은 문학이나 예술등을 하는것이 바람직한 걸로 잘못 가르친다고 성토했다.

어려서부터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모든 분야에서 동등하게 일할수 있음을 주입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엔지니어링 진출은 이처럼 눈부신 것이긴 하지만 문제가 아주 없는것도 아니다.

잘못하면 여자와 동등한자격으로 일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원들의 팀웍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로스엔젤레스支社】

「世紀의 華燭」앞두고 술렁이는 英國

△△△△△△△

오는29일 거행되는 찰즈英國 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의 결혼식을 앞두고 英國왕실은 각종축하행사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있다. 결혼식전야에는 2톤이나 되는 거대한 폭죽이 하늘을 수놓게되며 메뉴니아, 플록스등의 예쁜꽃들이 바구니에 담겨 거리에 내걸리고 1만4천그루의 제라늄이 버킹검宮을 더한층 화려하게 장식하게된다. 또 1백99m나 되는 길다란 붉은융단이 식장에깔리고 봉화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려지며 1백58개의 영국황태자깃발이 나부끼게 된다.

▽▽▽▽▽▽▽

◇지난1일 20회생일을 맞이한 다이애너양이 약혼자인 찰즈황태자와 함께 자선영화시사회에 참석하고있다.

지체부자유아 들을 포함한 8천명의 어린이를위한 행사와 각종 노상파티가 벌어지고 기상천외의 각종 축하행사가 줄을 잇는다. 엘리자베드여왕은 찰즈황태자의 결혼식행사에 불필요한 지출은 일체 삼가라는칙령을 발표했으나 이밖에 귀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황태자측근들의 이야기처럼『오래동안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눈앞에 다가온』찰즈황태자의 결혼식에 많은 영국인들은 환희에 들떠있다.

돈이 문제가 안되는 화려한 축하놀이중의 하나는 결혼식전야인 28일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열려질 폭죽놀이. 마치 환등기가 돌아가는것처럼 각양각색의 불꽃을 밤하늘에 수놓게 된다. 이같은 유별난 폭죽을 만든 마이틀·파커소령은『하이드·파크 폭죽놀이는 1749년 엑스라샤펠」조약체결 축하꽃놀이 이래 가장 볼만한 것으로 장관을 이룰것』이라고 말하고있다.

1만2천개의 爆竹

式場엔 百99m의 붉은융단

全國 방방곡곡서 烽火올려

파커 소령이 만든 이「환등기 폭죽」은 2톤에달하는 1만2천개의 각종폭죽이 들어있는데 하이드·파크의 특설발사장은 길이가 91m에 높이가 12m나된다.

폭죽놀이 시작과 때맞춰 악사 5백명의 연주와 웨일즈경비대합창단의 합창이 울려퍼지고 여기에 왕실기병대포병의 축포소리가 한데어우러져 분위기는 한층 여기를 더해갈것으로 보인다.

폭죽놀이의 절정은 수압기중기를 이용, 지상 52m지점에까지 올려지게될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양의 대형초상화의 중심부에 태양을 방불케하는 높이65m의 회전불꽃을 피워올리는 것이라고 파커소령은 설명했다.

결혼식1개월전부터 왕실은 궁정에 1만4천그루의 제라늄을 심었으며 화려하게장식된 깃대를 버킹검宮에서결혼식장인 聖바오로성당으로 통하는 길목에 줄지어 세워놓았다. 황태자를 상징하는 깃발들은 또 결혼식행렬이지나는 곳마다 휘날리게된다.

직조업자들은 식장인 聖바오로성당입구에 깔게될 1백99m길이의 융단을 거의 완성했다.

결혼식전야 불꽃놀이때에는 찰즈황태자가 도버·北아일랜드 나아가서는 헤브리디즈列島까지 방방곡곡에 밝히게될 봉화를 밝혀주는 중앙의 봉화를 직접 점화할 계획이다.

정부관광당국의 한 관리는 옥외축하파티, 전시회등 각종 행사계획을 살펴보면 마치 엘리자베드여왕의 취임25주년 기념식을 연상케 된다고 말했다. 【UPI=聯合】

海外話題

◇영국의 조각가 질·트위드가 조각한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양의 청동상. 높이 177·8㎜의 이 정교한조각은 750개만 제작된다.

5·16賞 수상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⑧④

緣이란 어느날갑자기 끊어지는것도 끊을수있는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내게는 아직 할일이 있었다.

정년퇴임과함께 하원과는 일단고별을했으나 후진양성이나 내학문의 끝맺음을위해 임목육종연구소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계약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연구고문직을 맡아 연구소에 방을 한차지하고 퇴임전 학교로 나가는 마음으로 매일 출근을한다.

내게는 이제부터 제2회 인생인 셈이다. 묘포에 가지런한 묘목, 연구실 창밖으로 하늘을 오르는 은수원사시 한그루도 새로움이 있었다. 그들 나무들과 對話가 가능할것 같다.

그렇게 다음 인생이 시작됐다고 느끼던 78년 3월 어느날 연세대의대의 柳駿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해 5·16민족상 수상후보로 꼽고있다면서 필요한 서류를 올려보는게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분은 그때 5·16민족상 심사위원이었다.

당치도 않은 말이었다. 과분하게도 나는 학술원상도 받았고 3·1문화상도 받았다. 특히 세상에 알려진 내 연구업적이란 나혼자만의 결실이 아니고 연구진 모두의 협력에 의해 이뤄진것인데 어찌 나혼자 받을 상인가. 즉석에서 수상할만한 이유가 없을것 같다고 사양했다.

"硏究陣전체의 공로"사양도 했으나…

며칠후 柳박사가 다시 전화를 했다. 나는 전번과 같은 사연을 되풀이 설명하고 그래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면 내 개인이 수상하는것으로가 아니라 연구소가 받되 나는 만 연구소를 대표하는것뿐으로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소 공적을 종합정리하여 적어 올렸다. 그러나 단체상이란 예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수상자는 내 개인 이름이 되었다. 나는 또한번 부끄럽고 미안해졌다.

훈장과 상패는 내가 보관한다더라도 상금 3백만원만은 연구소의 것이었다. 崔定錫소장에게 그돈을 전네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적으나마 의의있게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78년 5·16민족상을 수상한筆者는 수상시일동과함께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연구소는 연구상제도를만들어 연구업적을 남긴 연구원들에게 상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예금이자로운영하다보니 실질적인보탬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상이란 실마리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을것이다.

5·16수상식이 끝나고 朴正熙전 대통령은 은수원사시를 현사시로 이름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을 물어왔으나 나는 사양했다. 그해11월 육림의날에도 그랬었다. 은수원사시의 육종 또한 한사람의 것이 아니고 모두의 공동노력이 집약된 것이기 때문이다.

賞金은 硏究所에、當局엔 硏究두뇌確保등 건의

그날 朴대통령은 나의 건의를 받아 실행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관계당국자에게 지시하고 자리를 떴다.

그자리에서 나는 현실적이고도장기적인 과제가 되는 몇가지를 건의했다.

우선 조림은 山主가 주체가 되어야하는데 영세한 탓에 의욕이 없으니 장기저리융자등으로 그들에게 조림의욕을 북돋아 줘야한다. 이같은 제도는 외국에서도 그예를 많이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의욕에 뒤따라야 할일은 올바른 조림이다. 개량품종으로서 지세나 토양조건에 맞춰 적지에 적종을 심어야 성공률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체계가 확립되어야한다. 조림지도는 병충해방제나 간벌등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연구소의 두뇌확보는 당장에도 시급한 과제이거니와 긴 앞을 내다보아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했다. 두뇌는 연구소의 생명인데도 외면을 받아왔다. 연구직에대한 대우가 나쁘니 외면을 당해왔고 외면을 당하다보니 연구열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스웨덴 국제과학재단의 충격이 채가시지않은때여서 이것만은 꼭 실현되기를 염원했다. 이같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가는듯 했다. 그러나 결국 이뤄지지못했다.

美에 가정分娩 늘어난다

助産員 도움…아기 出産

버몬트州가 최고

현대적인의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을 피하고 전래의 산파술을 가진 조산원의 도움으로 집에서 아기를 낳는 이른바 가정분만운동이 미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기계문명에 식상, 될수록 자연에 가까운 환경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의해 주도되고있는데 이들은 되도록기계화가 덜된환경속에서 그들의 아이가 태어나야한다는생각에서 가정분만을 택하고있다.

미국에서도 가정분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버몬트州. 이곳은 1950年代에는 거치환경과 빈곤,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가정분만경향이 높았고 60年代에는 단연 병원분만경향이 높아졌으나 80年代들어서면서 다시 가정분만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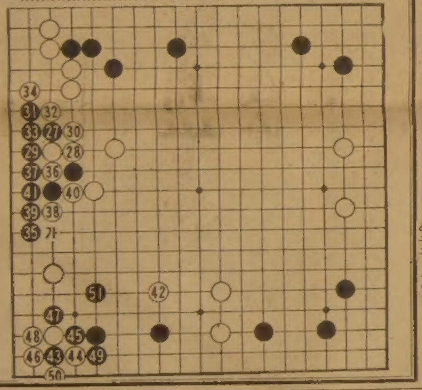
버몬트보건성의 데이비드·필슨박사는『요즈음의 가정분만경향은 교육정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에서 많이 택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가정분만이 늘어나자 산파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에따라 전래의산파술을 가진 무면허 조산원들의 의료행위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AP=聯合】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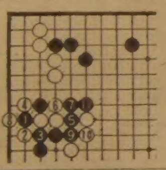
白(挑戰者) 徐奉洙〈1勝1敗〉
黑(名人) 曺薰鉉〈1勝1敗〉

第3局 第3譜 27~51 (각5시간 덤5집반)



黑27에 갑자기 붙이고 白28때 黑29로 젖힐때, 한국기원5층 해설장에모인 많은팬들은 한때 어리둥절하며 긴장되었다. 대체 무슨 묘수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사실말이지 이 수에는 함정아닌 노림이 있었다. 白이 만약 오기를 부려 37자리를 젖혀 막았다가는 낭패가 나는것이다. 즉 참고도의 黑1에 대하여 白2면 黑3에 끊고 白4때 黑5이하 11까지 멋지게 뚫고 나가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도전자가 눈치를 채고 白30으로 밀어막은 수는 침착했다. 이렇게되면 黑31이하 白34는 당연한데 여기서 黑35가 유일한 삶의맥이었다. 일반아마추어라면 35를 「가」자리에 뛰어두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白에게 39자리의 치중수를 당하여 큰일이 난다.

第2線은 敗亡線



白36이하 黑41까지의 외길로서 黑은 용하게 자리삶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해설장의 尹奇鉉8단이 『제2선은 패망선이라는데 이것은평소의 曺名人답지않다』며 의아할만큼 黑의모양은 말이아니다. 이같이 黑이 白의세력속에서 안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바람에 黑한점을 삼킨 白의세가 갑자기 두터워져 도전자는 大滿悅이다. 이외세를 최대한활용하여 白42. 이제는 다시 한번黑이 불안해져서 43이하51로 서둘러 수습해야되었다. 국세는 물론 白이 졸지에 유망해졌는데—. 【一凡】

21일 뉴욕서…60國衛星중계

81년도 유니버스선발大會

【뉴욕12日=全泰雄특파원】 1981년도 미스유니버스대회가 오는21일 뉴욕에서열린다.

미국의 TV방송 CBS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서 위성중계되는 본선대회는 7월20일 하오9시(한국시간 21일상오11시)에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민스크오프극장에서 막을 연다.

미스코리아 李恩定양을 비롯한 77개국의 미녀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 15일 개막식과 예선대회를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제30회째 미스유니버스대회가되는 금년뉴욕대회는 작년에 이대회를주관한 한국인 張琪在회장을 비롯, 세계 축구왕 펠레등 12명의각계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위촉했다. 張회장은 유일한 아시아출신 심사위원이다.

미스유니버스社 헤럴드·글래서사장등 대회관계자들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한국의 아름다움에 놀랐다』고 이구동성이다.

映畵합작·言論人교류 合意

李文公·美국제交流處長 修交百年 공동行事도

【워싱턴15日=曺淳煥특파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의 韓國美術 5千年展 개막행사에 참석키위해 訪美중인 李光杓문화공보부장관은 15일 상오(현지시간) 길버트·A·로빈슨 美국제교류처장서리와 만나 韓美修交 1백주년이 되는 내년에 양국에서 개최될 일련의 경축행사에관한 것들을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李장관과 로빈슨처장서리는 韓美文化交流의 첫회의에 대해서도 검토, 이위원회를통해 새로운 제도적인관계의 발전이있을것을희망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胃아토니

胃아토니란 胃의 긴장상태가 저하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꿈틀거리는 胃의 蠕動力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 이때문에 胃아토니가 되면 위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정체해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연 위 내용물은 십이지장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늦어지게되고 이때문에 한층 위의 긴장상태가 떨어져 증세를 악화시킨다.

위아토니는 대부분 위하수와 함께 병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병이 갖는 복합적인 증세를나타낸다. 주증세는 복부의 팽만감과 압박감, 사람에 따라 식욕부진과 상복부 복통을 호소한다. 식후 하복부 팽만감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 환자는 이때문에 식사를 꺼리게되며 결과적으로 체중감소 현상마저 나타나게 된다. 트림과 헛구역질을 자주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먹지 못하기 때문에 변비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여자 환자 가운데 목과 가슴에 무엇이 얹혀있는것 같다며 이물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식사를 할땐 별다른 지장이 없다.

胃긴장상태 저하…잦은 트림·구역질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 전신피로와 함께 두통, 현기증마저 인다.

이같은 위아토니는 선천적으로 근육이 약하거나 여윈사람에게 걸리기쉽다. 어릴때 과식을 지나치게해도 나타날수 있다. 드문 경우이긴 하나 下劑를 남용한다거나 진정제를 습관적으로 과용해도 나타날수 있다.

위아토니는 아직 뚜렷한 근본치료법이 없다. 그러나 적절한 식이요법과 맨손체조와같은 운동요법을통해 증세를 어느정도 호전시킬수는 있다. 경우에 따라서 위장운동을 다소 촉진시켜주는 약과 그밖의 소화제를 사용할수있으나 일시적인요법에 지나지않다. 심한 변비엔 하제를 사용할수 있지만 습관성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식이요법은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한회에 조금씩 여러회로 나누어드는 것이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할것이 아니라 5~6회로 나누어 자주들도록 한다. 음료수는 가능한한 적게 마신다. 식사는 가능한한 천천히 들도록한다. 한 숟가락의 밥을 적어도 30회정도 씹어삼키는 습관을 들인다. 식후 30분정도 바른쪽 배를 밑으로 하고 편히 누워 휴식을 취한다. 다투지 말고 마음을 항상 명랑하게 갖도록 한다.

朴炅南 (醫博·漢陽大醫大내과교수)

모눈종이 위의 生 <150>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⑤⑨

『그렇지. 피해가 크면 무사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럼요. 실화(失火)혐의로 고발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겁나는 일예요. 혹시 그 사람들이 내려올는지도 모르니까 산길로 산길로 해서 가까스로 가 보았더니…』

『영지는 그럼 맨발로?』

『아뇨. 여인숙 집에서 헌운동화를 빌어 신었죠』

『붙은 별 개 아니었던 모양이지?』

『네. 방갈로 뒤쪽에 붙여지은 나무간만 꺼멓게 타있고 집도 처마 끝으로 조금 그을리기는 했지만 말짱했어요』

『다행이었군. 그래서? 구두는 찾고?』

『아뇨. 그 이튿날인가, 유미는 충격이 너무 컸던지 집으로 내려갔고, 저만 동정도 살필 겸 가배로 나갔는데 신발 한 짝이 벌써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튿날 아침 방갈로에서 내려오며 일행 중 누군가가 아마 발견한 모양이에요. 며칠 뒤, 데리고 있는 애들의 실수를 사죄한다며 마담 언니가 술을 한 잔 내기로 했는데, 그때 전 두번째로 한민일씨와 파트너가 됐어요. 유미만 빼고는 여자들도 그대로고… 내 구두 얘기도 나왔고, 불낸 얘기하며 유미하고 내가 도망친 얘기… 전 그저 놀림감이었죠. 부끄러워 혼났어요. 그런데 그날밤에도 또 이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연은 아홉 시가 조금 넘어 끝났고…』

나는 염치없이 하하 웃고 나서 말했다.

『정말 환상이 깨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하고, 노영지는 반기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보았다. 그런 다음 봉투에서 비닐로 포장한 팡 하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제가 넘겨 짚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언니 말예요. 아직도 한민일씨에 대해서 환상 비슷한 걸 가지고 계신 게 아닌지. 그렇다면 깨버리세요. 주제넘은 말이면 용서하시고…』

『아냐. 그건 영지 말이 맞아. 그 사람 뿐만 아니고, 남자들 모두에 대해서도 난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했어. 나이는 나보다 밑이지만 난 도리어 영지가 언니인 것 같아』

『책망이시죠? 답아빠졌다는?』

『아아니, 그렇대도 그건 좋은 뜻으로 한 말야』

노영지는 조금 갈등을 느끼는 표정으로 침묵했다. 묻고싶은 것들이 더 많았지만 나는 참았다. 아니, 묻지 않아도 나는 그와 노영지의 그뒤 일들을 짐작할 것같았다.

이제 노영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단계인 것이다. 시작도 갈등으로, 끝도 갈등으로된 불편한 관계. 그러나 내가 그에게 접근했을 때는 그가 노영지에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어쨌든 나는 타이밍이 나빴었다. 그러나 노영지가 그에게서 달아나고자 하는 지금은 이제 사정이 조금 달라진 것이다.

우리는 음료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온 빵을 다 먹었다.

『그만 갈까?』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가 말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노영지에게 정릉 그 방갈로에 대해서, 위치나, 언제 그가 그곳을 이용하는가 따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묻지 않아도 현지를 뒤지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들었고, 또 노영지에게 필요 이상으로 의혹을 가중시키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다.

얼굴

盧泰愚 政務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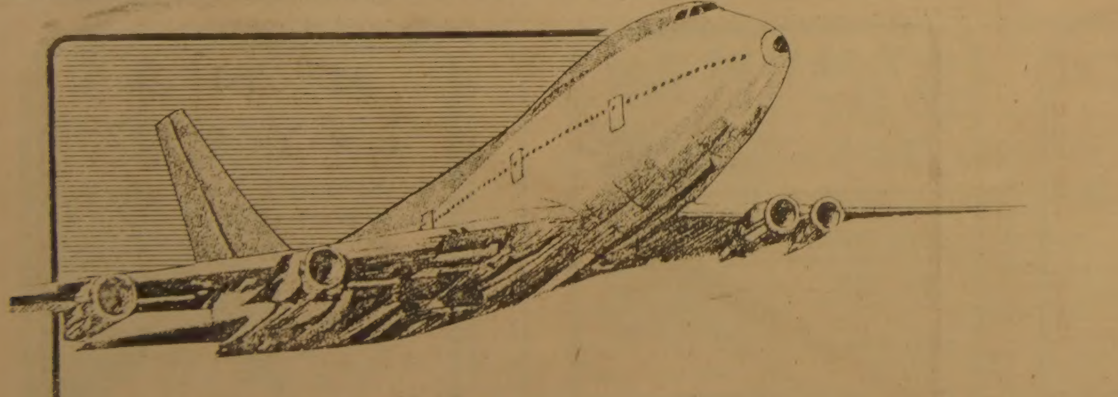
예리한 判斷·넓은包容力 갖춰

당당한 체구, 구리빛 얼굴의 盧장관은 30년간 군에 몸담은 맹장이었고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이론가로도 정평이 나있다.

10·26, 12·12사태, 5·17등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예리한 판단과 결단력, 투철한 국가관으로 제5공화국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

55년육사11기로 임관한 이래 파월대대장 일선사단장 수경사령관등 군요직을 거쳐 작년8월 보안사령관에 임명된이래 사회개혁작업의 중책을 완수했다.

군에 있으면서도 부하들이나 일반사회인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귀에거슬리는 충고에도 설득력을 발휘하는등 넓은포용력도 갖고있다. 취미로는 테니스가 수준급이며 음악도 조예가 깊어 손수 작사·작곡을 한다고. 부인 金옥숙여사(46)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있다.



여름철 SEAT SALE!

서울왕복 $1,180

KAL뉴욕경유 : 자유귀환

●방문초청 특별요금(초청장 작성)
●저렴한 국내선 특별요금(SKYBUS · SKY SAVER · · CHARTER)
●관광휴양
●월부 · 크레딧 카드 환영

IATA

KAL

NEW WORLD TRAVEL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EST, TORONTO
김 창 범

Tel. (416) 536-2155/6
(RES) 492-7525

海外文學

75년 공쿠르賞「가짜作家소동」수수께끼푼

「존재하지않는 男子」佛서出刊 화제모아

原著者 로망가리의 조카가 써 "아저씨强要로 가짜행세" 暴露

□□□□□□ 75년도 공쿠르賞수상작「自己앞의 生」의 진짜 작가로 밝혀진 로망·가리의 수수께끼를 푸는책「존재하지않은 男子」가 최근 출간돼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로망·가리의 조카이며「自己앞의 生」의 假名작가인「에밀·아자르」의「얼굴」로 나서주었던 폴·파블로비치가 쓴 이「존재하지않은 男子」는 로망·가리가 어떻게「에밀·아자르」라는 유령인물을 내세웠는가를 설명해주고있어 프랑스문단의 호기심을 풀어주고있다. 그리고 이 책은 로망·가리가 권총자살로 이끈 부정적인 生의배경을 묘사해내고 있기도하다. □□□□□□

「自己앞의 生」이 75년도 공쿠르賞을 수상했을때, 프랑스문단과 출판계는 작가 에밀·아자르를 찾기위해 여기 저기를 더듬었으나, 에밀·아자르는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을 반쯤가린 사진만을 보내오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자르의 모습은 파티석상이나 문단인들의 모임에도 일체 나타나지않아 아자르는「고독한 피짜 작가」로서 이미지를 만들었다. 당시 눈이 날카로운 일부 신문기자들은 아자르를 추적해서 아자르가 로망·가리의 조카인 폴·파블로비치임을 밝혀내고, 파블로비치가 썼다는「自己앞의 生」이 가리의 소설과 체취가 비슷하다는점을 들어『「自己앞의 生」의 진짜작가는 로망·가리가 아닐까』하는 추측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 기사에 대해 가리는「잘못된 기사」라고 말하고 자기가 쓴 소설이 아니라고 극구부인했었다. 그후 폴·파블로비치는 아자르라는 펜·네임으로 세권의 소설을 쓴것으로 프랑스문단에 알려져 왔다. 로망·가리는 아자르의 이름을 빌고, 조카 폴·파블로비치의 얼굴을 빌어 세권의 소설을 쓴 뒤, 지난해 12월에 권총을 입에물고 자살해 버렸다.

파블로비치는 가리가 죽자「眞實」을 밝히기로 결심, 사실을 밝히는책을쓰고 신문기자들에게『나는 아저씨에게 조종당했다. 나에게 에밀·아자르가 되어 달라는 아저씨의 끈질긴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파블로비치는 지난 3일 프랑스 TV의 토크·쇼에 나와 그가 쓴「존재하지않은 남자」에 대해 설명하고, 가리의 人格배경에대해 설명했다.

가리는 1920년대 명배우로 活躍했던 무주킨의 庶子라는 소문이있다. 그러나 그의 출생신분은 아버지가 분명치 않은「아버지없는 아이」로서 어두운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의어머니는 가리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 아들이 출세하도록 진력했다. 가리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외교관이되고 작가가되어 커다란 명성을 얻었으나 한 인간으로서의 人生은 그다지 행복하지못했다.

그의 주변에서는 가리를「작가로서는 성공했으나, 한 인간으로서는 사랑받기 어려웠던인물」이라고 평해, 그의 人格과 성격이 불우한 정신생활에 영향받았음을 시사한다. 가리는 로스앤젤레스영사로 미국에 체재하고있었던 58년에 그의 두번째아내인 배우 진·세버그를 만나 결혼했다. 그는 세버그를 몹시 사랑했고, 세버그가 79년에「약물중독」으로 사망했을 때는 슬픔에 빠졌던 것으로 보도됐다. 파블로비치는 그가 쓴책「존재하지않은 男子」에서『아저씨의 아내였던 진·세버그는 이혼이후 내게 이야기하기를「당신도 조심해요. 그를 가까이하지 말아요. 그는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이에요」라고 충고했었다』고 쓰고있다.

◆「文學의 世紀的인 속임수」로 평해지는 공쿠르賞 가공작가 사건의 주인공인 로망·가리(左)와 그의 조카 폴·파블로비치。파블로비치는「受賞」이후 수염을 깨끗이 밀었다.

파블로비치는 그의 책에서 왜 가리가 조카의 얼굴을 빌고, 아자르라는 가명을 썼는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파블로비치는『아저씨는 내게 그이유를 명백히 설명해 주진 않았으나, 아마도 첫째는 재미삼아서, 둘째는 돈이 필요해서일 것』으로 밝히고있다. 가리는 56년에「하늘의 뿌리」로 공쿠르賞을 받았으며, 수상한 경력이있는 작가에게는 다시 상을 주지않는 규정을 두고있다. 파블로비치는 TV의 토크·쇼에 나와『나는 작가는 아니다.

그러나 아저씨가 죽은 다음에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 조카로서『존재하지 않은 男子』를 쓰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프랑스비평계는『공쿠르賞 수상작품 전체가 로망·가리의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닌가』고 신랄하게 비꼬고,『파블로비치가 썼다는『존재하지 않은 男子』역시 로망·가리의 마지막 작품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일어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이 사건은 세계 문학사상 드물게 보는「世紀的인 속임수」로서 소설가의 한 狂氣가 빚은 사건」이라고 해설한다. 【헤럴드·트리뷴紙】

論壇

"선비정신의 창조적 昇華를"

鄭漢淑교수 논문「한국知識人과 선비精神」

목숨과도 바꿨던「仁의실천」 守舊的인 폐단은 고쳐져야

현대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낱말 가운데「지식인」(Intellectual) 이라는 말만큼 남용되는 낱말도 드물며 또 정의하기힘든 낱말도 없다. 특히 일상언어적인 용어가될만큼 보편화된 싯점에서 문화의 창조주체로서의 지식인 문제는 개념정립이 필요한것이다. 학자들이 펴내는 학술季刊誌「現代社會」여름호는 이같은 관점에서 지식인에대한 특집을 꾸미고 지식인의 정의에서부터 지식인의 역할, 현대사회와의 관계등을 심층분석하고 있다. 특집가운데서 鄭漢淑교수(高大·국문학)가 논한「한국지식인과 선비정신」의 내용을 간추린다.

흔히 학식은있되 벼슬하지 아니한사람을 선비라고 부르며 古人들은「士出於農」을 말하였다. 벼슬하여 大夫가되고 벼슬하지아니하면 농사일에 힘을쓰니 사실에있어서는 모두 민중이며 다만 어질고 덕있는이를 가리어「士」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규정할때는「讀書曰士」라 하여 글읽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런의미의 선비는 識字人이라 불렀는데 다소 먹물이 든 사람이라는 뜻이다. 시쳇말로 지식인이라는말은 이같은 識字人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의 古人들이 선비라고 불러준것은 公的교육이 가르칠수없는 어떤품위와 멋을지닌사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같은 관점에서 선비로 들수있는 이가 梅泉 黃玹, 西厓 柳成龍, 曠菴 李檗을 들수있다.

梅泉은 전남광양출신으로 黃喜정승의 후손이며 宣祖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한 黃進장군은 그의 중시조다.

梅泉은 큰기대를품고상경, 성균관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의고배를 마셨다. 이때 명문장사인 秋琴 姜瑋를 알게되고 그를통해 寧齋 李建昌과 滄江 金澤榮을 사귀어 후세 韓末4大家로 불렸다.

벼슬길을 포기한 梅泉은 下鄕, 書堂을 짓고 詩作과 한문으로 소일하면서「梅泉野錄」「梧下記聞」「言事疏」등의 글을 지었다. 모두 충성스러운 直諫의 문장이다.

그는 國恥에임해 자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

『나라가 망했다하여 내가 반드시 죽어야할 의리는 없다. 그러나 국가에서 5백년 동안 선비를 양성하여 왔으나 나라가 망하는 날에 선비로서 한사람도 죽는이가 볼수없으니 어찌 통탄할일이 아니냐. 나는 위로 皇天에서 받은 올바른 마음씨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 평생을 두고 읽던 좋은 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감히 잠들려 하니 도리에 통쾌함을 깨닫겠다. 너희들은 내가죽는다하여 너무 지나치게 슬퍼말라』

이같은 梅泉의 최후를통해 진실의 소리 이외에는 어느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가 선비정신의 본질임을 알수있다.

◇鄭漢淑교수

梅泉은 자신도 술회한바와 같이 벼슬한일이없으므로 망국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지않았다. 그러나 梅泉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망한 나라에 서까래하나 보태주지못한 자신의미력을 반성하면서도 자신의자결이 仁의 실천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西厓는 나라가 위급할에당하여 몸을 바쳐 분사했다.그는 壬亂에 군량과 외교를 맡았는데『지나간 일을 징계하고(懲) 뒷근심을 삼가도록(毖)』 당부했다.

西厓는 壬亂때 혁혁한 공적을 남겼으면서도 亂이 평정되자 누구보다도먼저 罷免을 떠나 田野에 묻혔다. 그러면서도「懲毖錄」을 남긴것은 나라를 염려하고 민족을 위하는 정성에 있었다.

梅泉의 자결이 시속의 급진주의가 아니듯 西厓의 출公도 시속의 순응주의는 아니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엄밀하게 구분하는데서 현대적 지식인 像은 스스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같은점에서 우리는 현대에있어서 선비정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왜소함에 대해 반성해볼필요가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선비들의 한가지폐단은 지나치게 수구적인 자세에 있었다. 참다운 지식인이란 원리에충실한 선비정신을 보존하면서 새로운면을 개척할수있는 창조적지식인이되어야한다. 이같은 창조적지식인의 실례는 18세기 曠菴李檗에게찾아볼수있다. 1754년 경기도광주에서 태어난曠菴은 강한체력과 뛰어난 신체로도남보다 뛰어났지만 사물의 근거를 밝히는 철저한 사색능력에있어서는 당대의 누구도 따를수없었다.

曠菴은 당대의 부패한 주자학에 반대하고 새로운 삶의원리를 찾아 전전하던끝에 아무의 도움이나 인도도없이 북경서 흘러들어온 기독교서적을 접하게 되었다。독서와 묵상에 潛心하면서 수년을보낸후 曠菴은 1779년「천주공경가」라는 한글가사를 지었고 양반의자제와 중인들을 모아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했다.

曠菴은 1786년 38세의 젊은나이로 이승을 하직했으나 그가 남긴 一大巨作인「聖敎要旨」는 한국기독교의 원류로 그가치를 아직도 보존하고있다.

曠菴은 당시의 창조적지식인으로서 민중과함께 널리 올바른삶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오늘의 싯점에서우리의 지식인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다。舶來品行商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수있는 선비가 얼마나 있는지, 또 고루한 권위를 내세우며 젊은 세대의 창조적 노력을 가로막을 大家는 또 얼마나 많은지, 선비정신이있는 지식인에 대해 비판하는 논지가 여기에있다.

화제의 새冊

參戰체험쓴 6·25소설2種

「自由의 細胞」등

○…6·25당시 군에 복무한 경험이있는 작가들이 쓴 6·25소설「自由의 細胞」(李文熙著)와「波濤三十年」(金鍾淳著)이 동시에 나왔다.

省安堂이 내놓은「自由의 細胞」는 육사8기생이자 의사로서 6·25때 참전하여 금성화랑무공훈장등을 탄바있는 李文熙씨가 자신의 체험을 소설화한것이다. 이 민족의 한 세포인 의사가 日帝침략의말기와 6·25를 맞아 자유수호를위해 투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光復出版社가 내놓은「波濤三十年」은 고교재학중 6·25를 맞아 학도병으로 출전하여「백골부대」소대장으로 근무했다가 중령으로 예편한 金鍾淳씨의 글로 역시 자신의 체험을 쓰고있다. 고교1학년의 어린나이에 학도병을 지원하여 군대에들어가 혈투를 벌인끝에 韓滿국경까지 진출했다가 中共軍의 개입으로 후퇴라는 좌절을맛보기까지의 체험을 실감나게 묘사해보이고있다.

정치사상등 헤겔다룬 譯書

한번社서 두卷

○…한번社는「헤겔의 정치사상」(솔로모·아비네리著·김장권譯)과「역사와 현실변증법」(알렉산드르·코제브著·설헌영譯)등 2권의 헤겔에 관한 저술을 동시에 내놓았다.

이중「헤겔의 정치사상」은 헤겔의 모든 저술을 총망라하여, 그의 정치사상 전반을 추적, 그의 시민사회,역사의식, 시대정신, 변동문제등을 쉽게 해설하고있다.

한편「역사와 현실변증법」은 역사의 변증법이 지배와 예속의 변증법으로 전개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있다.

文化短信

雪峰 1周忌추모식 내일 全經聯회관

雪峰 金溶完박사의 1周忌추모식이 18일상오10시 여의도 全經聯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추모식후에는 墓所行차편이 준비될예정이다. 문의전화㉒1222·9648.

어린이文學賞 제정 계몽사서 내년부터

아동도서전문출판사인 계몽사는 82년2월1일부터 28일까지를 접수기간으로 한「계몽사어린이문학상」을 제정했다.

공모작품은 ▲장편 동화나 소년소설(2백자원고지 5백장안팎)당선작1편(3백만원) 가작1편(1백만원) ▲중편 아동극(1백20장)당선작1편(1백만원) 가작1편(50만원)▲동요및동시(5편)당선작1편(50만원) 가작1편(20만원)。

洛東江 보존회서 變形魚등 사진전

낙동강보존협회가 창립3주년을 맞아 마련한 낙동강 變形魚 사진전이 18일부터 23일까지 釜山 원화랑(USIS옆)에서 열린다. 이번전시회에는 변형어실물 및 사진, 낙동강의 환경공해 사진과 풍물사진들이 선을 보인다.

出版전문화에한몫 編輯人大學講座

理論과實務를 체계적으로 女性수강생急增 두드러져

지난 4일 개강한 제1회 編輯人大學講座는 우리 출판계의 전문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강식에서 閔泳斌출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여러분의 선배들은 어깨너머로 출판을 배웠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고도화·전문화되는 오늘날 문화의 심장이라할수있는 출판부문에서 그런 식의 인재양성은 더이상 통하지않게 됐다』고 말했다. ○○○○○

出版

편집인대학강좌는 3개월동안 매주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출판의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고급편집인 양성과정이다.

편집인대학이 생기기전에도 출판을 위한 교육이 전무했던것은 아니다. 대학의 신문방송학과같은데서는 出版學槪論을 강의하고있다. 그러나 대학의 강의내용은 추상적인 이론에 그친다는 흠이 있다. 반면 지금까지 출판편집인대학의 전신이라 할수있는「편집인 연수강좌」는 실무지식을 주는 점은 있지만 1주나 10일정도의 단기강이어서 역시 본격적인교육과는 거리가멀었다.

이번 개강한 편집인대학에서 또한가지 두드러진것은 여성수강자의 비율이높은점이다.

여성수강자는 전체인원 1백14명중 35명(30%)으로 남성79명의 절반을다소 밑도나 지금까지 출판계의 인력구조로볼때 상당한 비율인셈이다.

편집인대학과는 다소 차이가있으나편집인연수강좌의경우 제1회인 73년에 85명중 여성은불과 7명으로 8%에 불과했다.

그런던것이 2회때는 1백14명중 23명(20%)、3회는 1백10명중 15명(13%)으로 부침을 거듭하다 작년에는 1백96명중 46명으로 23%를 기록했다. 특히 참가출판사중 聖書敎材社와 同和出版公社등은 3명의 수강생중 2명을 여사원으로 뽑아보내고 있는데 同和의 丁恩化양(23)은『대학때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서 출판학개론은 배웠지만 보다 확실한 지식을 얻기위해 입학을 지원했다.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결혼후에도 계속 일하겠다』고 말하고있다.

◇한국의 출판계를 이끌어갈 편집인들을 양성하게될「編輯人大學講座」。여성이 많이 눈에띈다.

한편 출판인들은 우수한 인력이 무역회사같은데 가게되어 여성인력의 비중이 커지는것은 필연적이다. 출판은 여성들도 비교적불편없이 일할수있는곳이기 때문이다』고 털어놓고있어 여성의 출판계 진출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편집인들의 증가추세는 여성독서인구의 증가및 여성출판경영자의 증가추세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있다. 70년대부터 주대구조와 가치체계의 발달로 부엌에서 해방된 주부들의 독서량은 급격히 늘고 있다.

여성경영자로는 徐棣淑씨(正宇社)와 李恩愛씨(은애출판사)등이 맹활약을 하고있으며 경영자는 아니나 샘터社의 吳澄子씨(주간)같이 상당수의 출판사에서 여성이 제작의 총책임을 맡고있다.

出協의 李起雄상무는『여성수강생들의 열의가 남성들에게결코지지않고있다. 남녀의 구성비가 어찌됐건 앞으로의출판은 막연한 상식이아니라 전문지식만이 성패를 좌우할것』이며 이에따라 편집인대학도 계속 수준을 향상시키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文豪의 名言

徐敬德 〈1489~1546〉

朝鮮朝초엽의 學者。字는 可久,號는 復齋 花潭,松都 禾井里출신。生員試에 壯元했으나 벼슬을 단념,학문에 전념했다。理氣論의 본질을 연구,一氣論을 체계화함。朴淵瀑布 黃眞伊와함께 松都三絕로 일컬어짐。「花潭集」。

인간의 精神이나 마음의 本質은 움직임 곧 힘이다

산에 나물캐고 물에 낚시함은 주림 면하고, 자연 읊고 노래하니 내 마음 기쁘며, 의심없는곳에 다다라 쾌락 또한 끼니 백년을 헛되이 사는인간 안되게 다행일세.

採山釣水堪充腹 咏月吟風足暢神 學到不疑眞快活 免教虛作百年人。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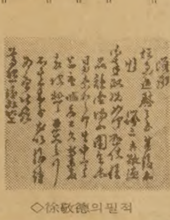
이는 花潭이 끝내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진리를 앎으로써 궁전히 삶을 즐긴 자신의뜻을 읊은것이다.

徐敬德은 家勢가 빈한하여 독학으로 공부, 13세에 書經을읽고 복잡한 太陰曆의 수학적계산을 스스로 획득했으며 18세에는 大學을 읽어 格物致知의 원리를깨닫았다. 中宗14년 趙光祖에 의해 賢良科에 응시토록 추천받았으나 사퇴, 生員試에도 붙었으나 벼슬을 단념한채 松都東門밖 花潭에 초막을 지어 理氣論의 本質을 연구했다.

그가 살던 李朝初葉은 戊午、甲子등 士禍가 잦았다. 그러나 中宗이 왕위에 오르자 지난날의 모든 惡弊를 일소, 節義를 장려했고 諫辭을 받아들여 널리 인재를 등용했으되 그는 끝내 벼슬을 사양, 安貧樂道의 길을 택한것이다.

그의 理氣一元論에 따르면 인간의 죽음도 宇宙의 氣에 환원된다는 死生一如의 철학으로 老子의 生死分離論이나 佛教의 인간생명이 寂滅한다는 주장이 모두 배격된다. 말하자면 靈魂不滅說이다.

花潭의 여러說을 종합하면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의 본질은 궁극에 이르러보면 하나의 움직이는것, 즉 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 그의 탁월함이 있다. 힘이란 기운이요 에너지요 氣인것이 틀림없다。花潭은 氣를 理보다 더 중시한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공간에 無始無終으로 편만해있는것은 氣이다. 그 氣가 化하여 우주안의 만물이 생성되는것은 인간의 마음 역시 예외일수 없다. 氣는 物心의 근본이다.



◇徐敬德의필적

현대의 정신분석학이나 心理學등에서도 에너지科學의 영향을받아 마음의 本質을 에너지로보는 설이 유력하게 대두된것을 보면 그 선구로서 花潭은 벌써 그것을 통찰했던것이 틀림없다.

1544년 金安國등이 厚陵參奉에 추천했으나 받지않고 계속 초막에 머물면서 性理學의연구에 전념, 道學·數學·易學연구에 여생을 보냈다.

『글 배우던 소시때엔 경륜도 컸건만, 이제 늙어선 안빈낙도에 이르렀네。부귀는 다투어야 함에 손도 못대지만, 산수경치는 無禁이라 도가지네』

流星의 賊 〈133〉

李炳注作 李友範畵

亡兆의 日月 ⑲

나라를 위해 지푸라기 한개 들 성의도 없는 자들이 말하기만을 좋아해서 거듭 이제신의 처단을 요구하는 바람에 임금은 드디어 영을 내렸다.

『이제신을 불러오도록 하라』

그런데 이 영이 내린지 4일 후에 이제신이 적과 싸워 크게 이겼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임금이 혀를 차고 말했다.

『내 이제신이 그럴 줄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를 불러오라고 했다. 이제 그가 공을 세웠으니 잡아 오는 것은 온당한 일이 못되지 않느냐』

『전하의 말씀은 옳사오나 도사(都事)가 이미 떠났으니 중도에서 멈추어 돌아오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잡아 온 후, 전하께서 잘 타일러 주옵소서』

비변사(備邊司)의 답이었다.

이무렵 북방의 정세는 이러했다. 적이 훈융진(訓戎鎭)을 포위했을 때 온성부사(穩城府使) 신립(申砬)이 본진의 첨사(僉事) 신상절(申尙節)과 함께 적을 무찔러 적의 수급(首級) 50여개를 베었다. 김수도 적의 머리 40여개를 베어, 기왕의 패배를 속죄하려고 강을 건넜다. 그러나 그편 이제신이 장사 김우추(金遇秋)등을 보내어 적의 소굴을 쳐서 분탕 소멸하고 적의 수급 2백15개를 벤 후였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김수를 처형할 임무를 맡은 이극선(李克善)이 진중에 도착했다. 이제신이 대명률(大明律)을 내세워

『형의 집행은 반드시 3일이 지나서 해야 한다』

며 3일후 김수를 처단했다.

이에앞서 조정에선 김수를두고 말이 있었다. 비변사가

『김수는 힘써 공을 세우려고 했으니, 비록 속죄될수는 없다고 해도 국문도 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할 여유도 없이 처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짓이 아니오리까』

하는 제의를 한 것인데 임금은

『묘당(廟堂)에서 기특한 꾀를 내어 천리 밖의 적을 무찔러 승리를 결정짓진 못할 망정, 성(城)을 함몰당한 장수를 구원하려 애쓰는 꼴이 뭔가』하고 질책하는 바람에 김수의 처단이 확정되고만 것이었다.

『성을 함몰당한 먼저의 죄는 그후의 공으로 속죄가 되었으니 사형을 감하고 법대로 처리하라』

고 이제신을 미워하는 동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간원은 그러나 이제신을

『장(將)에게 있어온데 제신이 어찌 형을 면할수가 있읍니까. 뿐만 아니라 김수를 처형하는 표신(標信)을 받고는 시흥이나 머물러 명령(命令)을 거슬려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고 강경했다. 그러나 임금은

『제신은 임기응변의 공을 다했다』

며 듣지 않았다.

하지만 동인들의 책동이 끈질겨 이제신은 강계(江界)를 귀양 가서 그 해의 10월 인산(麟山)의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청렴한 장군의 억울하기 한량없는 최후라고 하겠다.

종합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R. R. S. P
•빌딩·상점

※10년이상의 경험
※모든 보험에 관한 문의 환영
최저의 프레미엄 보장
Stan Herman
(B)425—4994
(R)293—1708

감 사 말 씀

지난 7월11일 본인의 차남 성규석군과 고명애양의 결혼식을 맞아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선후배, 친지들께서 찾아 주신것에 대해서 우선 지면을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편파업상 감사카드 못보내게 된것을 죄송합니다.

1981년 7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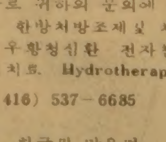
성 용 창 배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 Yonge / 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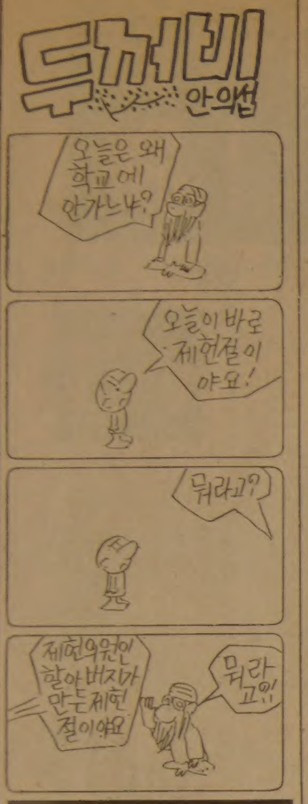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민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요일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바캉스철… 아폴로 눈病注意報

서울·大田등 번져 "풀장·공중沐浴湯서 조심해야"

보사부는 16일 최근 서울、大田지역등에서 유행성 각·결막염(속칭·아폴로눈병)환자가 늘어나고있어 전국에주의보를 내리고 풀과 공중목욕탕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감독등 유행성안질환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특히 앞으로 각급학교의 방학과 함께 수영장등에서 이 눈병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각 시도 보건당국 책임아래 유행지역에서는 눈병환자를를、목욕탕등에 입장금지시키고、환자발생때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환자가 쓰던 수건등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등 개인위생계몽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문교부등 관계부처에 예방계몽교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폴로눈병은 바이러스성(아데노바이러스) 질환으로 이환기간은 약2주~4주간이며 특히 5~12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후 14일까지가 전염률이 가장높아 환자나 가족들은 이기간중 특별한주의가 필요하다。

발병후 약7일후부터 환자중의 약50%는 각막에서 점상출혈이 일어나며 심한경우 각막에 궤양이일어나거나 각막혼탁으로 드물지만 시력장애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것。

이 눈병은 환자의 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이에 오염된 수건등의 물건과 물등의직접접촉으로 전염되나 불완전한 소독때문에 안과병의원의 진료실에서도 옮는 경우도있어 보사부당국은 각안과 병의원에 특별한 주의를 해 줄 것도 아울러당부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아폴로눈병은 지난 10일께부터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1주일사이에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 梨大부속 병원은 현재 1일 평균12~13명、경희의료원6~7명등 각대학병원 안과에 갑자기 환자가밀려들고있다。

親舊토막낸 殺人女 精神장애 15년宣告

【釜山=聯】釜山지법 형사4부(재판장 梁仁平부장판사)는 15일 친구를 목졸라 죽인후 토막냈던 金羅東피고인(25·여·東萊구長箭2동478)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약물과용으로 적은자극에도 자신을 조절하지못할정도의 정신장애상태였었다고 판단、징역15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金피고인은 지난 1월31일 밤9시께 친구 朴英春여인(25·釜山鎭군 釜田2洞186의402)을 자기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환각제라속여먹인후 실신하자 목졸라숨지게한뒤 다이어반지·목걸이등7백20만원상당을 뺏고 여섯토막을내 여행용 가방에넣어 경남梁山郡梁山邑北部동 언니집에 숨겨두었다가 검거돼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金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불복、항소하기로했다。

유니버스大會 固有 의상상 미스코리아 李恩定양 3位

【뉴욕16日=金泰雄특파원】미스코리아 李恩定양은 15일 밤 뉴욕의 브로드웨이 민스커프극장에서 열린 1981년 미스유니버스대회 예선에서 고유의상상3위를 차지했다。33도를 넘는 무더운 뉴욕에서 미스코리아가 선보인 흰색갑사한복은 우아하면서도 세련되어보는 이들을 시원하게해주었다。

◇미스유니버스대회에서 의상상을 차지한 미스코리아 李恩定양。

이날 대회에서 미스브라질 아드리아나·오리베이라양이 고유의상 1위를、그리고미스베네주엘라 아일린·사에스·콘데양이 2위를 차지했다。

대회취재 사진기자들이 뽑는 사진상은 덴마크의 티나·브란드스트루프가 받았으며 미인대표들이 동료가운데서 가장 친절한 미인을 직접뽑는 우정상은 미스 바하마 인 된다·데레사·스미드가 차지했다。

미스 코리아는 3등상을받아 순위는 떨어졌지만 제일 먼저 금색트로피를받아 인기를 모았다。

미스유니버스의 영광을 따려는 미녀들은 이날밤8시부터 약3시간에 걸쳐 진행된 예선에서 야회복심사와 수영복 심사를 받았으며 16일과 17일에는 면접심사를 받는다。

미스코리아는 예선이 끝난후 신발이 [illegible]아 고통끝에 발에 쥐가나 극장 로비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그의 고통도 아랑곳없이 많은관객들이 그에게 사인공세를 퍼부었다。

77명중 12명을뽑는 예선결과는 전세계에 우주중계되는 20일밤의 본선에서 공표된다。

미스코리아 李양은 예선을 통과할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안개속 두船舶 충돌

실버스타號 침몰…船員모두구조

【釜山=聯】15일 밤 10시20분께 부산 影島區台宗臺앞生島남동쪽 1·8마일해상에서 홍콩에서 잡화를싣고 부산으로 들어오던 홍아해운소속제1도남호(1천9백99톤·선장 강철웅·41)가 부산에서 컨테이너와 일용잡화를싣고 홍콩으로가던 국제해운소속 화물선 실버스타호(3천톤·선장 金경호·51)의 우현을 들이받아 실버스타호가 침몰됐다。

이날사고는 10m앞이 보이지않게 안개가짙게낀 사고해역을 두배가 서로 마주 달리다 일어났다。

실버스타호는 우측 1번창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서서히 우측으로 기울어져 1시간 뒤인 밤11시20분께 가라앉았으나 그사이 이 배에 타고있던 선원 26명은 구명보트로 탈출、긴급구조에 나선 해경 경비정 두척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清白吏 韓敬愛씨 5級으로 特別승진

보사부는 16일 청백리상을 받은 韓敬愛씨(56·국립각심학원보모)를 6급(주사)에서 5급(사무관)으로 특별승진 발령했다。

韓씨는 국립각심학원에서 31년동안 정박아 교육에 종사하면서 불우장애자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지난 5월2일 제1회 청백리상을 수상했었다。

올해 첫벼가 팼다

昇州九上마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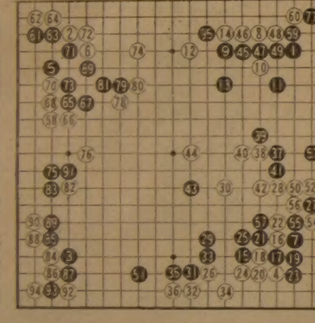
【順天=聯】금년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벼가 팼다。

全南昇州郡海龍面孤頭里九上마을 李榮華씨(50)의 마을앞 6백평의 논에 지난 4월28일 심은 풍년 조생종벼가 2~3일전부터 출수하기 시작、16일에는 대부분의 벼가 팼다。

潛水夫 쇼크死 27m水壓 못견뎌

【釜山=聯】15일 하오2시40분께 경남 梁山郡 西生面鎭下里 명성도앞 1㎞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잠수부 崔현석씨(31·鎭下里181)가 수심 27m까지 잠수했다가 수압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

趙名人 好調 本因坊6局



◇제36기 本因坊戰도전7번기 제6국(1~95)黑名人趙治勳9단(3승2패)白本因坊武宮正樹9단(2승3패) <제한시간 각9시간·黑5호반공제>

【熱海(아따미)=宋孝彬특파원】趙治勳名人이 도전하는 제36기 本因坊戰(每日新聞주최) 도전7번기 제6국이 벌써 대국이 16일상오9시 아따미(熱海)의 이즈노미노유가하라(泉之湯河原)온천호텔에서 속개됐다。

이날의 대국은 執白의 다께미야(武宮正樹)本因坊이 전날 43분의 장고끝에 봉수한 白78이 펼쳐짐으로써 시작됐다。

상변위쪽의黑흑을잡으려드는 白78에대해 趙名人은 黑79、81로 자체삶을도모했으며 이를 틈타 다께미야 本因坊은 왼쪽아래 黑귀를 유린했다。

그러나 趙名人은 이싸움에서 선수를 뽑아 반면의 최대초점인 상변 白집에 黑95로 짓혀 파탄을 불러일으켰다。

95까지 진행된 정오현재 반면은 黑이 두터움을 유지한가운데 趙名人이 상변에돈 95수가 白으로서는 큰부담이돼 대세는 趙名人쪽으로 기울고 있다。

趙名人이 이번제6국을 이길경우 통틀스코어 4승2패로 本因坊의 位와함께 상금 1천2백만엔과 대국료 3백30만엔등 1천5백30만엔을 부상으로 받게된다。

京釜高速道

「本錢」빼고 징수 7年延長 "通行料인하가 마땅"

◇경부고속도로의 출입구인 톨게이트。통행료징수기간 연장으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있다。

受益者부담 원칙外面

1日5萬여臺 차량이용자들 "울며겨자먹기 안돼야"

정기路線 할인·補修유지線 引下를 주장
6월로 建設費등 건져 超過수입 올려
배보다 배꼽이더큰 6百億補修…진기록

한국도로공사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기간을 오는88년 6월까지 연장해버리자 예기치않은 부담을안게된 하루5만여대에 달하는 각종차량등 이용자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통행료를 보수유지선으로 인하하고 정기노선에대해 할인혜택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도로공사는 지난 70년7월7일 경부고속도로를개통하면서 통행료는 도로건설에투입된공사비가 회수될때까지만징수키로했었는데 지난해1월 유료도로법을개정、징수기간을이처럼연기해버린것。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유지보수와 다른 고속도로의건설비조달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연기이유를 밝히고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지난6월말현재의 통행료수입이 1천3백80억9천5백만원으로 건설비 4백29억원과 보수유지비 6백33억원을 이미초과징수했으므로 당초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는한편 징수기간을 연장까지해얻는 통행료수입을 다른 고속도로건설에 투자한다는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는것이다。

올해로 개통11주년을 맞은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산업동맥으로 처음 등장、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고 산업발전에 큰공을 세운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건설당시 적은돈으로 빠른시일안에 완공하느라 졸속공사를 면치못했었다。

따라서 개통후부터 지금까지 전구간에 걸쳐 거의 매일 보수가 계속됐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건설비 4백29억원에 보수유지비가 6백33억원으로 건설비의 1·5배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드는 세계고속도로에 유례가없는 전기록까지 세웠다。

이에따라 도로공사는 외형적으로보면 통행료수입이 건설비의 3배에달하지만 보수유지비가 많이들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지난5월까지 받기로했던 통행료를 계속 더받기로한것。

또 경부고속도로 이외의 다른구간 고속도로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것도 징수기간을 연장한 주요이 중 하나인데 이를위해 지해1월 유료도로법 제9조항을 개정、노선별독립채제를 노선합산 채산제로 꿨다는 것이다。

노선별독립채산제로 할 유·징수기간이 각각달라 경부·경인선처럼 수익성이 높은구간이 일찍 무료화됨에 따라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수익이 낮은 노선의 수익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합리성이 따른다는게 당국의 주장이다。개정내용은「2개이상의 유료도로의 관리자가 동일하고、교통상관련을 갖고있으며 통행료의 징수를 통합해야할 특별한 사유가있을때、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도로로하여 통행료를 징수할수 있도록해 전고속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속버스회사등 경부고속도로이용자들은 이같은 당국의 처사가 유료도로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통행료수입을 해당고속도로의 보수유지관리에 사용하지않고 다른노선의 보수유지와 신설공사비에 충당하는것은 유료도로의 의미를 망각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東洋고속·영업부장 石鉢씨(49)는『경부고속도로가 졸속공사로 건설비보다 더많은 유지관리비가 든다는것은 인정하지만 투자액이 충분히 회수된마당에 다른노선의 보수관리와 신설도로건설비 충당을위해 통행료징수기간을 연장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속버스요금을 앞지른 통행료인상은 요금인상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개통당시 서울—부산간 버스요금이 1천5백90원에서 현재 5천3백40원으로 3백36% 인상된데 비해 통행료는 3천2백원에서 1만3천4백원으로 4백19%나 올랐다。이처럼 통행료인상률이 버스요금인상률을 크게 앞지르자 고속버스업자들은 통행료인하를 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

韓進고속측에 의하면 현재 월평균 1억2천만원의 통행료를 내고있는데 통행료가 현실화될 경우 버스요금도 상당히 내릴수있어 승객의부담을크게 줄일수있다고말했다。

이에대해 건설부와 도로공사측은『당초의 약속을 지켜 무료화내지 실비로 인하조정을 못하는 사정이 안타깝다』며『경부·경인선을 제외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으로는 지체유지관리가 불가능、부득이 경부선의 통행료징수기간을 연장할수밖에 없다』고밝혔다。

경부고속도로 개통후 이용차량은 1억2천9백26만1천대、통행료수입은 1천3백80억9천 5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용차량은 화물차가 52·9%인 6천8백88만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가 30·6%인 3천9백56만8천대、버스는 16·5%인 2천1백30만9천대등이다。지난6월 현재의 하루평균 통행차량은 5만1천대、통행료 수입은 9천2백만원이다。【方敏俊기자】

무더위 3일째

어제 晋州지방 不快지수83 기록 江陵35·2度

◇물장구 풍덩풍덩 지리한 장마가 물러간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불쾌지수까지 올라가자 알몸뚱이의 어린이들이 시원한 계곡을 찾아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씻고있다。【16日하오4시서울鍾路區洗劍亭계곡에서】

장마가 걷힌뒤 다친불볕더위가연3일째계속되고있다。

중앙관상대에 의하면 16일 江陵지방의 최고기온이 예년보다 7도1분이나 높은 35·2도로 15일(35·4도)에 이어 연이틀간이나 전국최고기온을 기록했고 서울도 31·6도(예년 28·7도)까지 수은주가 올라가 올들어 가장높은 기온을 보였다。

또 부산(29·3도)과 忠武지방(29·2도)을 제외한 모든지역이 30도를 웃돌았고、불쾌지수도 晋州지방의 83을 최고로 서울이 81이나 되어 짜증스런 날씨였다。

관상대는 지난14일부터 우리나라가북태평양고기압의연변에놓여이같은찌는더위가계속되고 앞으로 무더위는당분간 지속되겠다고 예보했다。

16일 각지방의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다。(단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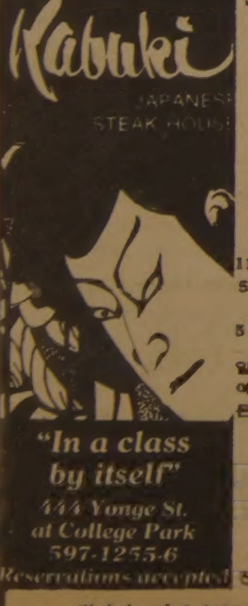
▲서울=31·6 ▲仁川=30 ▲水原=34·7 ▲瑞山=31·8 ▲大田=32·6 ▲江陵=35·2 ▲春川=33·1 ▲東草=31·5 ▲群山=32·7 ▲全州=32·6 ▲光州=31·9 ▲木浦=31·9 ▲麗水=30·1 ▲濟州=30·2 ▲大邱=32·5 ▲浦項=33·7 ▲蔚山=32·6 ▲釜山=29·3 ▲忠武=29·2 ▲晋州=31 ▲蔚珍=33·8

한국일보 詩壇

돌 하나

申孝貞

아버지 옛 사시면
시골집 돌담에
지는해에도
물방울 빛내는 영롱한
돌 한개가
편마암、푸석돌、그 새 중간에
몸사리고 누워 있었읍니다
三虞祭 지내고
아버님 상청에 절하고 돌아서며
쏟아지는 눈물 감추려
뒷결에 숨었다가
눈물 빛에 어룽진
그 돌하나
고이 빼어내어
눈물 닦은 치마폭으로
닦고、또 닦았읍니다
아침 저녁 뜨물 주면 잘 자란다는
아버님 때놓고 돌아가신 송곳니 같은
수정 돌 하나
수반에 담아놓고、먼 산 보듯
한번씩 바라봅니다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스페샬점심시간
11:45AM~2:30PM
5:00P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전화: 597-1255~6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동양식품
교민의 성원속에
나날이 발전함을
감사드리며, 집집마다
배달도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함 태 민올림
248-5131
1662 JANE ST.(로렌스)
D. Y. FOODS

美、호쾌한 長打力폭발 3敗끝에 回生의 1勝

―韓·美大學야구 4次戰

6-1

홈런4發로 勝勢굳혀

한국、우승문턱에서 발목잡혀

美國대학선발팀은 15일밤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제2회 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 4차전서 호쾌한 장타를 터뜨려 4개의 홈런으로 韓國대학선발팀에 6-1로 승리, 3連敗끝에 1승을 올렸다. 7전4선승제의 대회서 3번 내리패하여 막다른골목에 몰려있던 美國은 이날 1회말 선제점을 올린후 3회말 오웬의 중월 솔로, 5회말 존스의 좌월 솔로와 러셀의 좌월 투런, 7회말 스텁스의 우월 솔로홈런으로 5점을 추가하여 승리를굳혔다.

타력이 보잘것없다고 핀잔받던 美國대학선발팀은 막판에 몰린 제4차전서 의외의 장타력을 보여주었다.

1회말 1死후 2번수미트가 포볼을 고르자 3번 러셀이 좌월2루타로 2、3루의 찬스를 마련하고 4번 파치오렉의 희생플라이로 가볍게 1점을 선제했다.

韓國이 2회초 金城漢의우전안타와 적실로 1-1의타이스코어를 만들자 美國은3회말 선두1번 오웬의 중월 홈런한방으로 다시 한걸음앞서 나갔다.

3연승을 올린후여서인지 韓國선수들의 플레이는 다소 이완돼 있었다. 모처럼 등판해서 역투하던 좌완 선발楊相汶은 5회말 존스에게 또 한방의 솔로호머를맞고 물러났으며 구원에 나선 尹學吉도 5회말 러셀에게 투런호머를, 7회말 스텁스에게 솔로호머를 얻어맞아 첫패배를 기록했다.

尹學吉은 4게임에 구원등판, 첫 3게임서 7이닝을던져 3승을 기록했으나 마지막 게임은 놓치고말았다.

◇제4차전

	1	2	3	4	5	6	7	8	9	계
한국 (3승1패)	0	1	0	0	0	0	0	0	0	1
미국 (1승3패)	1	0	1	0	3	0	1	0	×	6

▲홈런=오웬(3회말)·존스(5회말)·러셀(5회말·2점)·스텁스(7회말·이상 미국)

◇제4차전 3회말 美國의 선두1번 오웬이 솔로호머를 때리고 홈인,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대통령기 男女농구

仁川松都高

個人技·스피드로 三一實高 大破

鄭德和·申鍾喆활약 준결에

仁川松都高와光新商高가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 남고부 준결승에 먼저 올랐다.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대회 5일째 남고부 준준결승에서 명문 松都高는 鄭德和·申鍾喆이 맹활약 文斗植혼자 외롭게 숏을 날리는 水原三一實高를 107-82로 대파했다.

松都는 기본기와 스피드에서 월등한 우세를 보였고 金潤錫·金泰裕가 보조공격을펴 팀플레이에 활기를 불어넣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崔昌福·李宇振등 단신선수들의 저돌적인 공격을 주무기로 삼고있는 光新商高와 金星旭(192㎝)의 포스트플레이와 吳圭德의 숏에의존하는 大邱啓聖高와의 대전서는 光新商高가 94-91로이겼다.

두팀은 전반 무골차를두고 치열한 공방전을벌였으나 후반 기동력을앞세운 光新商高가승리했다.

한편 여고부준결승서 祥明女高는 金玉姬가 골밑에서종횡무진으로 숏을날리고 李金眞 李桂淑의 보조공격으로리바운드가 달리는데다 뚜렷한 외곽슈터없는 釜山 東洲女商을 76-67로 격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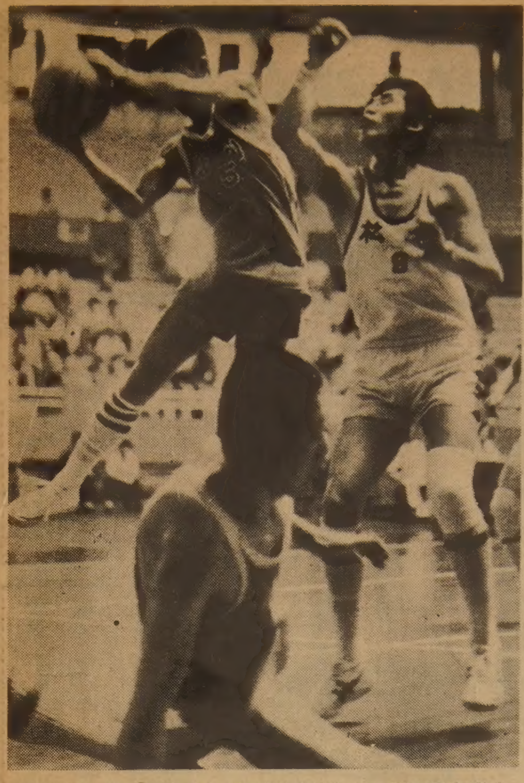
◇제5일 준준결승

▲남고부

인천송도	107	(66-43, 41-39)	82	수원삼일
광신상고	94	(45-46, 49-45)	91	대구계성

▲여고부

상명여고	76	(34-32, 42-35)	67	부산동주



◇松都高―三一實高의 대전。三一實의 1년생 가드 安世桓(左)이 힘차게 뛰어올라 松都센터 金潤錫(右)을 제치고 리바운드볼을 따내고있다。松都 107―82로 대승。

핸드볼協 臨總개최 會長 金宗河씨유력

핸드볼협회는 17일 하오1시 체육회 강당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공석중인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吳禎錫前회장은 지난 4일 일신상의 이유로 회장직을사퇴했는데 후임회장으로는 핸드볼인인 金宗河씨(高麗合織사장)가 유력한 것으로알려졌다.

팀 파울制度 도입

핸드볼協, 來1일부터 새規則적용

대한핸드볼협회는 국제연맹의 경기규칙변경에 따라팀파울제도를 도입하는등 경기규칙을 변경 오는8월1일부터 실시키로했다. 변경된 규칙은 오는8월11일 서울에서 열리는 韓日대학교환경기에 첫 적용케 됐는데 새규칙은 경기의 무리한 반칙을 막기위해 팀파울제를도입, 한팀이 세번이상 파울을하면 그다음선수부터는 무조건 2분간 퇴장을 선언토록하고 심한파울을 했을경우는 회수에관계없이 2분간 퇴장이나실격을 선언할수 있도록했다.

종래에는 팀파울제도는 없었고 개인에게만 처음 경고, 두번째 파울부터는 2분간 퇴장을 명할수있게 되어 있었다.

또 변경규칙은 종래 40분으로 되어있는 여자고등부와 대학일반부의 경기시간을 남자와같이 고등부 50분, 대학일반 60분으로 각각 연장하며 골키퍼도 중앙선을 넘을수있다.

이밖에도 새규칙은 코너드로잉을 없애고 무조건 사이드라인에서 경기를시작, 직접 슈팅을 할수있도록 고쳤다.

美洲卓球여행 ⑥

―全美오픈大會의 意味

同胞들은 매일 獻身的인 뒷바라지

金浣다리경련 쓰러져 기권패 선언

미국팬 열띤항의로 審判번복 競技재개

대회개막부터는 뉴저지 한인회의 눈부신 선수단지원작전이 전개되었다. 지철영한인회장, 유인석씨, 이화진씨, 한인회의 안광선사무총장등은 거의 매일 경기장에서 살다시피하며 선수단에 대한 음식과 교통편의를 전담했다. 뉴욕의 재미체육회 이사인 황희씨는 선수단과함께 프린스턴에 묵으며 선수단통역과 안내를 맡았다.

경기장 여기저기에 교민들이 걸어놓은 태극기와플래카드가 한국선수들을 성원하고 있었다. 남자예선 최종전 스웨덴과의 경기가 시작됐다. 美國과의 3시간에 걸친 혈전에서 분패한직후여서 선수들은 몹시 지쳐있었다.

스웨덴은 세계선수권을 여러차례 차지한 전통적탁구 강국。지난번 세계대회서는 9단식에서 한국에 5-4로 역전패했었으나 이날 경기에는 한국의 金浣·金琓澤을 모두 물리쳤던 아펠그렌이 버티고있어 만만치 않았다。밀고 밀리는 접전에서 金浣과 劉時興의 분전으로 2-2의 타이가 되었다。

마지막 단식에 나선 金浣은 스웨덴의 라스·펠케를 첫세트 21-19、제2세트 5-4로 리드한 가운데 테이블 가장자리로 빠지는 볼을 건지려다 격심한 왼쪽다리의 경련으로쓰러졌다。깜짝 놀라 뛰어든 임원들이 金浣의 다리를주무르는동안 심판은 金의기권패를 선언했다。선수단이 황급히 이의를 제기했으나 주심은 고집불통이었다。곧 치프·엄파이어에게항의, 거의 10분이나 중단됐던 경기가 재개됐다。선수단의 설득력있는 항의는물론, 한국―스웨덴의 수준높은 경기에 심취해있던美國팬들의 거센 항의에 대회본부도 손을 들고 말았다。

간신히 테이블에 기대선 金浣은 펠케의 공격볼을필사적으로 받아쳤다。하늘의 도움인지 펠케의타구는 金浣이 노리는 왼쪽으로만날아와 연거푸 경정타를 성공시켜 21-13으로 완승했다。그때까지도 다리를 절뚝이는 金浣을 붙들고 선수단과 교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스웨덴과의 격전은 2시간40분이나 걸렸다。

이날밤 선수단은 교민 유인석씨집 정원에서 흥겨운 축승회를 가졌다。풀의 차거운 물속에 왼쪽다리를 담근채 승리의 주역 金浣은 『美國과 경기할때부터 다리가 이상했어요。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데요』하고 엄살을 부렸다。金榮植단장은 『浣이는 다리가 아플때 더 잘하는것같아。그대로하면 中共도 문제없겠어』하고 좌중을 웃겼다。

스웨덴의 미카엘·아펠그렌은 대단히 인상적인 선수였다。플레이가 제대로 풀리지않자 라킷을 던지며 흥분하기도 했으나 스웨덴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한국과의 경기도중에도 자신의 라킷미스를 심판이 보지못하자 스스로 오판을바로 잡아주는 페어·플레이를 보였다。

단체전 예선에이어 벌어진 개인전 남자단식서는金浣이 3회전에서 東歐출신의 캐나다선수 코소노빅에게, 吳炳萬도 3회전에서中共의 李振侍에게, 각각 3-1로 분패, 모두 탈락했다。복식서는 金浣·劉時興조가 아펠그렌·펠케조를누르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李在勳·金琓澤조는 中共의 謝賽克, 美國 에릭·보간조에 2-1로 역전패, 준준결승고비서탈락했다。

여단식서는 安海淑이 세계챔피언 董玲에게 3-1로, 黃男淑이 역시 中共의 張德英에게 3-2로 석패했다。복식서는 辛庚淑·閔成姬조가 준결승서 中共의 張德英·董玲조에 2-1로 졌으나 黃男淑·安海淑조는 결승에 진출, 다시 張·董조와 겨루게됐다。【方錫晌기자】

世界靑少年 야구

對스웨덴戰 낙승예상 決勝진출 확정적

金健宇 노히트 노런

한국、네덜란드 5대0完破

【뉴어크(美오하이오州)=李鍾南특파원】한국청소년야구대표팀은 16일 이곳에서벌어진 세계청소년 야구대회 A조 3차전에서 金健友의 대회 첫노히트 노런에 힘입어 네덜란드를 5-0으로완봉, 3연승을 올렸다.

A조 선두인 한국은 3패의 스웨덴과 예선최종전에서 낙승이 예상돼 결승진출이 확정적이다.

B조에서는 美國이 4승을 기록, 수위를 달려 한국과결승전을갖게될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선발 金健友는 이날 네덜란드의 31타자를삼진13、내야땅볼12、외야플라이2、포볼2、내야실책2로 처리、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은 이날 2회초5번金相國、6번金敬鎬、7번裵大雄의 연속3안타와 2四死球로 3득점、승부를 갈랐다.

5회초에는 선두5번 金相國의 포볼과 도루、8번 崔鍾泰의 좌전2루타로1점、6회초에는 2번 具千書의우중월 3루타와 후속땅볼로1점을 추가했다.

◇제5일전적

▲A조

	1	2	3	4	5	6	7	8	9	계
한국 (3승)	0	3	0	0	1	1	0	0	0	5
네덜란드 (1승3패)	0	0	0	0	0	0	0	0	0	0

캐나다 (2승1패) 11-1 스웨덴 (3패)

▲B조

이탈리아 (2승2패) 7-6 과테말라

미국 (4승) 5-4 자유중국 (2승2패)

호주 (3승1패) 10-2 엘살바도르 (1승3패)

◇제4일전적

▲B조

미국 (3승) 18-0 과테말라 (3패) <7회콜드>

자유중국 (2승1패) 6-0 엘살바도르 (1승1패)

男子籠球16명出國

臺北 존즈컵 出戰

오는18일부터 31일까지 自由中國 臺北에서 열리는 제5회 존즈컵 국제남자농구대회에 출전할 韓國대표팀 16명(임원4·선수12)이 15일 CAL편으로출국했다.

이대회에는 韓國을 비롯, 지난해 우승팀 스웨덴등 13개국 14팀이 참가, 예선리그와 결승리그로 패권을다투는데 韓國은 지난해 7위를 차지했다.

◇선수단 ▲단장=李敬幸 ▲감독=金仁建 ▲코치=郭炫彩 ▲국제심판=李鍾萬 ▲선수=金東光 朴守教 申東燦 李文圭 朴仁圭 陳孝準 黃有夏 李長源 趙明來 安俊濩 朴鍾千 任模烈

◇참가국=韓國 오스트리아 스웨덴 싱가포르 英國 뉴질랜드 쿠웨이트 英國 필리핀 도미니카 콜롬비아 홍콩 自由中國(2팀)

種別탁구선수권

清州·釜山錦城 쟁패

女高部선 서울女商·大邱蓮花女가

【麗水=聯】제27회 전국종별탁구선수권대회 3일째 경기가 16일 이곳麗水高체육관에서 열려 남고단체전준결승에서 淸州高가 釜山商高를, 釜山 錦城高가 서울大光高를 각각 4-2로물리치고 결승에진출, 패권을 겨루게 되었다.

여고부 준결승에서는 서울女商이 裡一女高를 4-3으로, 大邱 蓮花女高가 釜山女商을 4-2로물리쳐 결승서 대결케되었다.

대회 2連覇를 노리는 서울女商은 이날 裡一女高와의 마지막 단식에서 이정진이 裡一의 신현숙을 2-0으로제압, 3시간30분간의 열전에서 신승했다.

◇제3일전적

▲남중단체준결승

인천남 4-2 부산남

만 경 4-2 춘천성수

▲동여중부

부산선화 4-0 [illegible]일

서울문영 4-2 충남신일

▲동남고부

청 주 4-2 군산상

부산금성 4-2 대 광

▲동여고부

서울여상 4-3 이 일

대구근화 4-2 부산여상

▲동남대부

한 성 4-1 충남중전

전 남 4-1 강 원

▲여대개인단식결승

김현숙(한성) 2-1 이경수(동덕)

▲동복식

이경주·최은희(동덕) 2-1 방희숙·윤기란(동덕)

실업排球 개막

美都波 緒戰 장식

主戰고루기용 油公3-1로 제압

【釜山=聯】81년도 제2차 실업배구연맹전이 여자8개팀, 남자3개팀등 모두 11개팀이 참가한가운데 16일 釜山九德체육관에서 개막,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첫날 첫경기로 벌어진여자부A조 美都波―石油公社의 경기에서는 美都波가 주전전원을 고루기용하는 여유를보인끝에 3-1로 승리, 서전을 장식했다.

美都波는 이날 1년생주공 韓歡愛가 전날연습도중 다리부상으로 결장, 초반 고전했으나 李云任의 좋은토스를바탕으로 곧쉽게 앞서나갔다.

첫세트를 15-11로따낸 美都波는 2세트서도 13-4까지 리드를 잡았으나 油公趙京子·閔惠子의 강타에 14-12까지 쫓겼다. 美都波는 이 고비에서 郭宣沃의 라이트오픈공격으로 15-12,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서나갔다.

이번 대회는 유니버시아드대회참가로 남자대표선수들은 빠졌으나 여자는 모두 소속팀으로 복귀해 뛰게됐다.

대진방식은 여자부가 각4개팀씩 2개조로 분리, 예선리그후 상위4개팀이 결승토너를갖게되며 남자부는 풀리그로 대회패권을 가린다.

◇첫날전적

미도파 3 (15-4 8-15 15-12 15-11) 1 석유공사

男女고교테니스

16強출전 20일개막

22일까지 장충코트서

제25회 전국남녀고교초청 테니스대회(한성테니스클럽주최·한국일보·일간스포츠후원)가 20일부터 22일까지 장충테니스코트에서 전국고교 우수선수 남녀 16強이 출전하는가운데 열린다.

이 대회는 3세트의 개인 판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지방선수들에게는 주최측으로부터 경기기간중 숙식비가 제공된다.

◇출전선수명단 ▲남자=盧甲澤·辛正大(마산)·宋明圭·李相鉉(대전)·洪性哲·金仁哲(마포)·孫鳳龍·蔡東旭(울산공)·鄭相元(강릉)·金昌運(대구)·金載德(공주)·具滋悅(동래)·文昌烈·朱寅錫(사레지오)·咸泳鶴(평창)·姜昇求(삼일실) ▲여자=朴良子·林井心(영암)·孔星玉·姜梨暻(영광)·金香淑(동래)·柳賢珠·金仁淑(충앙)·李英春·慶明先(청주충앙)·姜庚希(옥자)·吳長蓮·吳英子(브니엘)·許愛慶(경북)·黃淑·金英玉(조대부속)·禹美淑(대성)

徽新高 서울대표로 62회전국體典 참가

徽新高가 제62회 전국체전에 서울대표로 나가게됐다.

徽新高는 16일 효창운동장에서 폐막된 전국체전 서울시예선축구 고등부 결승전서 서울體高를 4-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徽新의 주공격수인 權容鉉은 전반8분 헤딩숏으로 첫골을 따낸뒤 25분과 37분에 잇달아 골을 성공시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權은 이날의 활약으로 이대회서 5득점, 최다득점 선수가 됐다.

徽新은 전반 종료직전 金德載가 프리킥을 직접 골에 연결시켜 4점째를올리고 승리를 굳혔다.

◇최종일 결승

▲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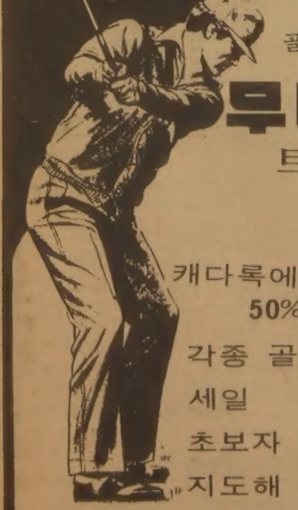
경신고교 4 (4-0 0-2) 2 서울체고

한국、日에對抗

西獨최대의日刊紙 全大統領순방論評

西獨의 최대일간지인 디·벨트紙는 「한국、고립에서벗어나 日本에 對抗」이라는제목으로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순방에 대해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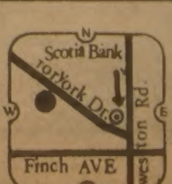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춘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CAROL'S JEWELERY & GIFTS
시내 MALL안에 있는 조그만 보석및 GIFT점입니다. 다이아몬드및 불로바·세이코 시계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무슨 종류의 보석(특히 다이아몬드)이든 최저가격으로 주문도 해 드립니다.
특히 시계, 보석수리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시계·보석 선물용 gift등 무슨 상담이든 환영하오며, 스페샬 가격으로 교민을 위하여 봉사코저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 상 길 올림
345 BLOOR ST. E.
BLOOR & SHERBOURN에서 약간 서쪽MALL안에 (GREENWIN SQUARE)
월~수 오전10시~오후7시
목~금 오전10~오후9시
토 오전10시~오후6시
B) 967-3449, R) 429-1392

江原道內 해수욕장 사용료 크게올라
最高 7百%線까지

【東草=駐】강원도내 해수욕장 공유수면점용및 사용료가 올해 최고 7백%까지 크게 올라 시설업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있다.

강원도는 지난1월18일 공유수면점용및 사용료징수조례를 고치면서 작년까지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근 토지등급이나 비슷한 지역의지가기준을 적용, 지가의 1●분의 10을 부과토록 개정했다.

이에따라 해수욕장 시설업자들은 숙박시설등 개인업대인상률이 11·5%선에 묶였으면서도 시군에는 최저50%~7백%까지 오른 점용료를 내야하는 실정.

襄陽郡은 이조치로 관내 9개해수욕장이 점용하고 있는 5만7천2백16평의 점용료로 1천1백31만8천1백60원을 징수케돼 지난해 4백88만69원보다 2배30%의 세수입을 올리게됐다.

琴湖江 農業用水로도 不適
大邱 上水道取水 중단
허용치 보다 오염도 35倍

【大邱=駐】琴湖江이 심하게 오염돼 식수나 농업용수로 더이상 사용할수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大邱市가 지난1월부터 4월까지 매월 1회씩 琴湖江의 大邱유입지역 취수장부근과 北區山格洞, 山格수원지일대및 西區 梨峴洞 지천주변등3개소에서 실시한 琴湖江오염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분석에 따르면 지천일대의 오염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월의경우 59·8PPM, 2월 96·7PPM, 3월 59·4PPM, 4월 2백6PPM등 평균 1백5·5PPM으로 식수허용기준치 3PPM에 비해 약35배, 농업용수 허용기준치 8PPM보다 13배가량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지역의 수중 용존산소량(D·O)은1월이4·4PPM, 2월2·8PPM, 3월 0PPM, 4월 0·2PPM으로 허용기준치 7·5PPM이상에는 크게 미달되고있다.

山格수원지일대에서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평균 8·8PPM으로 나타나 이미 식수로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됐다.

大邱地檢 汚染源 강력 단속방침
3백여業體 廢水방류

이조사서는 琴湖江의 오염원으로 琴湖江중류지역인 慶山郡일대의 41개업체와 하류지역인 大邱일대 2백73개기업체등 총3백14개공장에서 매일 8만8천7백톤의 폐수를 방출하면서 상당량을 정화처리하지않고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며 大邱중심부를 흐르는 新川·達西川을 통해 大邱시민이 쏟아내는 1일평균 30만톤씩의 생활폐수까지 그대로 흘러들고있어 오염이 가중되고있는것으로 분석했다.

大邱시는 이조사결과에 따라 하루 6만톤씩 취수하여 식수로 사용해오던 山格취수장의물을 지난 6월초순부터 大邱지방의 공업용수로 전환했으며 琴湖江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있는 66만여평에 대한 대책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했다.

한편 市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大邱지검은 琴湖江오염방지의 일환으로 폐수배출업체등 오염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南海岸 赤潮발생 우려
계속된 장마·工場폐수등 流入으로

【釜山=駐】국립수산진흥원은 15일 계속된 장마로 남해안연안에 적조발생이 예상된다고 예보, 천연안의 양식어민들은 어장피해를 줄이기위해 사전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수산진흥원은 馬山灣을 비롯해 鎭海灣·巨濟灣등에는 도시하수, 공장폐수등의 대량유입으로 염분농도가 낮아져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보, 물의 요동을 촉진시켜 소통을 좋게해주고 적조가 발생할 경우 이동이 가능한 뗏목식 양식시설물은 적조가 없는 외해나 다른어장으로 이동시켜주도록 요망했다.

적조현상이란 부유생물인 진노디니움이란 플랑크톤이 갑자기 늘어나 바닷물이 변해 일정도로 독성을 내뿜어 고기와 굴등 어패류를 모두 질식사하게 하는 현상이다.

鑛山사고보상에 業主·遺族 是非
適定額법제화 시급

【聞慶=駐】광산사고로인한 보상금시비로 사체를 수일간씩 사고현장에 방치하는등말썽이 계속되고있어 광산사고에대한 적정보상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지난 8일하오 3시20분께 聞慶郡虎溪面大亭2里 오정탄광에서 발생한 갱내화약폭발사고로 숨진 權용길씨(30·虎溪面鰲岩里480)유족들은 광업소와 보상문제로 다투느라고 사고가난지 8일째인 15일까지도 사체인수를거부, 사체가사고현장에방치돼있다. 이같은현상은聞成·大成등 각광업소에서 광산사고가 났을때마다 빚어지고있는 실정이다.

◇盛業기원하는 해수욕장 商人들 본격적인 바캉스철이되자 피서객을 맞을 채비를 끝낸 해수욕장의 한업자가 성업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있다. 【東草=駐】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高麗朝 石造佛像발견
高敞서 높이158cm에 폭93cm

【裡里=駐】高麗시대 것으로 보이는 석가여래석조불상이 16일 전북高敞郡星松面 茂松里 高玉姬씨(67)집에서 圓光大 민속자료조사단(단장 朴淳浩교수)에 의해 발견됐다.

이 석불은 높이 1백58·5cm 폭93·5cm 두께 13cm크기의 화강암 타원형 석재로 여래상을 앞뒤에 조각했는데 전면 불상은 좌고 1백5cm, 폭65cm크기로 양각돼 있고 후면은 좌고 68cm 폭60cm크기로 음각돼 있는것이 특징이다.

이 여래석조불상은 최근 高씨가 근처 선산에서 발견, 자기집에 옮겨와보관해왔다.

朴교수는 석불이 많이 손상돼 있으나 불상의 모습은 아주정교하고 선명하다고 말하고 불상의 조각 양식으로 보아 高麗시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勞使관계 모범4會社

서울여객 삥땅없게 特別수당 분규 한번없어
東洋製菓 "회사부터 살리자" 종업원들 앞장
韓昌섬유 不況에도 賃金인상…경영실적·사업계획 公開

오랜 불황속에서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다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 불황을 이겨나갈 지혜를 짜내야만할 어려운 시기다.

그어느때보다도 협조적인 勞使관계가 필요한 때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속에서 원만한 勞使관계를 유지해가며 기업을 키워가는 회사들이 있다.

타의 모범이 될만한 몇몇회사들의 勞使관계를 소개한다.

서울 大峙洞에서 東大門區新內洞간을 운행하는 서울시내버스회사인 서울여객 대표 李鍾善씨(38)는 모든 종업원을 친형제처럼 대우하고있다.

운전사·정비공·안내원등 모든 종사자들의 호칭부터가 다른회사와 다르다.

모든 종사자들을 「사원」으로 통일해서 부르며 勞使협의회에는 사장인 李씨가 한번도 빠지지않고 참석해, 종업원의 불만, 어려움을 직접들어 해결해준다.

삥땅을 없애기위해 매월 운전사에게는 5만원, 안내원에게는 1만5천원씩을 별도수당으로 지급하기도한다.

李씨의 이러한 가족관계와같은 勞使운영으로 그가 회사를 인수한이래 단1건의 노사분규도 없었다.

평소 근로자복지를위해 노력해 78년4월 시내버스업계에서는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상 임금구정과는 별도로 운전사는 29·6%, 안내원은 37·5%의 임금을인상지급함으로써 운수업계 전체 했다. 이같은 원만한 노사관계덕으로 사세는 욱일승천해 李씨가 78년회사를 인수한때 65대였던 시내버스가 3년만에 거의 2배에 가까운 1백8대로 늘어났다.

과자메이커인 東洋製菓노조위원장 金周源씨(35)는 『회사가 살아야만 종업원도 산다』는 신념을 갖고 노사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金씨는 지난 2월14일 위원장이 된이래 『노사협조 잘된곳에 웃음있고 발전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노사 단결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이와같은 노력은 최고위층에서도 충분히 이해해줘 노사관계가 어느때 보다 개선돼가고 있다는것.

이회사 張俊璟부사장(43)은 金위원장의 노고를 아주높이 평가한다. 『金위원장은 모든일을 큰소리 안내고 차분히 설명, 설득으로써 해결한다』고 칭찬을 아끼지않는 張부사장은 『이런 협조로 지난 5월30일 노사협의회에서 급료를 15%인상하고 3월부터 소급하도록 합의를 보았다』고 밝힌다.

張부사장은 회사를 아끼는 金위원장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아침 그를 만나, 종업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기위해 노력하고있다는것.

釜山에 본사를 둔 韓昌섬유 대표 金鍾錫씨(47)는 『勞使협조는 노사사이에 이룩된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질 때에만 비로소 기대할수 있다』고 말한다.

의류제조수출업체인 韓昌섬유는 현재 釜山과 서울의 6개공장에 종업원 3천여명을 고용, 제품전량을 수출하고있다.

金씨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있다』는 기업운영 철학을 갖고있다.

지난67년 20여명을 데리고 시작한 기업은 신장률이 연평균 28·6%에 달하고있다.

81년도의 수출목표도 5천8백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9·5%높이 책정, 불황을 이겨내고있다.

이러한 경이적인 신장은 『노사간의 화합과 상호이해로써 발전할수있다는 신념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인결과』라고 金씨는 서슴없이 말한다.

이러한 金씨의 노력으로 회사설립이래 단한건의 노사분규도 발생치 않았다는것.

金씨는 지난1월에는 기업인들이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노동조합 간부를 총무부장으로 승진 기용, 모든 근로자들이 성실히 노력만하면 언제고 회사의 요직에 기용될수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줌으로써 노사간의 협조체제를 더 굳혔다.

金씨는 또 매년초에는 지난해의 회사경영실적과 새해의 사업계획을 전종업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브리핑, 회사 운영상태를 공개함으로써 정감속에서 참여의식을 갖도록 해주기도 한다는것.

78년이래의 불황속에서도 78년 40%, 79년 24%, 80년 25%, 올해 20%씩 임금인상을 단행,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다.

해태제과 생산1과에 근무하는 孔權植씨(34)는 이회사 5천5백여명의 종업원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孔씨는 지난72년 이회사에 입사, 비스킷을 만드는 생산직 근로자에 불과하지만 항상 자기자신의 이익보다는 어떻게하면 회사가 발전할수있을까를 생각하며 일해왔다고 털어놓는다.

80년 5월에는 종전에 수동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완제품 운반용기구를 창안, 제작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했고 같은해 7월에는 진취적인 창의력을 발휘, 1주일만 쓰면 망가지는 소쿠리 기계(대당7~8만원)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개조, 연간 5백만원의 자재절감을 했다.

또 80년9월에는 선물용과자의 작업 공정을 개선, 1일90명의 인원을 감축시켰고 1인당 12만원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했다.

孔씨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력은 회사의 고위층은 물론 같은 생산직 사원들에게까지 알려져 회사를 아끼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노력, 노사간의 협조와 위화감 해소에 크게 공헌했다는것.

孔씨는 또 5년전부터는 상조회 「아멩이회」라는 친목회를 조직하여 1개월에 1회씩 모임을 가져 친목도모 및 개인적인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서로대화하여 조언하고 회사에 건의하는 교량적 역할을 해와 노사협조의 선도적 역할을하고있다.

【盧基昌기자】

◇李 鍾 善씨 ◇金 周 源씨 ◇金 鍾 錫씨 ◇孔 權 植씨

焦点

한국 現代建築 이것이 문제다
人間性회복·未來비전 缺如
官主導·도시設計不在도 發展저해
中堅건축가모임 「木口會」의 診斷

우리나라 건축계의 제2세대라 할수있는 중견건축가들이 한국 현대건축의 상황과 문젯점을 솔직하게 비판하고 나서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들은 특히 현재의 한국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2명의선배건축가에게도 비평을 가함으로써 일찍기 없었던 건축평론의 영역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대부분 중견 건축가로 꼽히는 이들은 서울工大 건축과출신들의 모임인 木口會(총무 金洹)의 회원들. 이들은 최근에 펴낸 동인지 「木口會1981년」을 통해 『한국의 현대건축은 설정만있고 행위는없다』고 비판하면서 현대건축의 과제인 「인간성의 회복」이나 「미래에대한 비전」등은 현재의 우리나라 건축에서 고려의 대상도 되지않고있다고 주장했다.

木口會는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는 官主導로 이루어진 문화』라고 지적하고 『우선 도시설계의 不在가 우리 건축계발전의 장애요소라고 말했다』

木口會는 『건축은 인간생활의 궤적이지 유행같은 전시물이 될 때는 허구일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가장 바람직한것은 4대문안은 전부 5층이내로하고 고층은 외곽에 배치,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존했어야했다고 주장했다.

木口會는 또 최근에 완공된 서울의 개개건물에 대한 평가를 시도, 教保빌딩의 경우 도시적인관점에서 문젯점이 많다고 밝혔다. 가령 자리에 비해 너무높고 크다든가, 무표정하며 위압적인자세, 도로와의 관계, 코너의 처리등이 그렇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개체의 건물로서는 教保빌딩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주변의 변화에 따라 평가역시 변화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방빌딩이나 플라자호텔등은 大衆拒否的인 인상을 주고있으며 특히 동방빌딩은 너무나 자기 영역만을 강조한 집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롯데호텔의 경우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단절하고 시야를 차단하면서 「도시의 壁」구실을 하고있어 거슬리지만 기존의 도시의 흐름에 자신의 흐름을 적응시키려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木口會회원들은 선배건축가에 대한 평가의 시도로서 金壽根, 金重業씨를 논했다.

金壽根씨의 경우는 대중작가로서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덧붙여 기능이나 건축적요소를 무시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金씨는 또 지난75년부터 종전의 노출콘크리트라든가 구조체의 솔직하고 강한 표현등을 벗어나 재료의 기능에대한 한국적탈바꿈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씨가 최근설계했던 東崇洞의 연극회관, 미술회관등은 작가적의지가 건물이 갖는 본질을 선행, 연극인이나 미술인들의 건물이 아닌 「金壽根씨개인의 작품」이 됐다고 지적됐다.

金重業씨는 작품의특징이 플로트의 전개가 아니고 시퀀스의 연결에있는데 여기에 그의 작품이 갖는 「수준의 업적난차이」의 비밀이 있다고 평가됐다. 가령 도큐호텔과 3·1빌딩은 金重業씨가 설계, 거의 동시에 작성된 건물인데 아직까지도 아름다운건물로 꼽히는 3·1빌딩과 그렇지못한 건물로 꼽히는 도큐호텔을 비교하면, 金重業씨의 비밀이 저절로 이해된다는것이다.

木口會는 우리건축계가 헤쳐가야할 문젯점으로서 다음의 몇가지점을 제기했다.

우선 건축가 개개인이 뚜렷한 건축이론을 형성해야하며 지도적 건축철학이 형성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창작활동에 있어서 이론적 바탕이 빈약하여 기술적이며 공학적 뒷받침이 없는 시공, 암기된 건축지식들의 적용, 감각적 표현의 모방등을 탈피, 자주성과 전통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건축교육의 근본적 재편성을 들고있다. 가령 선진歐美의 경우 대학에서의 건축가 양성코스가 대부분 7~8년인데 우리나라 대학은 4년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8년에 걸쳐 건축가를 양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4년에 걸쳐 양성한다는것은 결코 자랑이 될수 없다는 주장이다.

세째는 건축가의 사회적본분제. 건축가들이 국가적 중요건설정책수립에서 소외되는경우가 많으며 영향력이 없는 단순한 참조인역할을 맡을때가많은데 이를지양해야한다는것이다.

네째는 건축평론의 건전한 풍토조성문제. 평론이 성립되려면 비평의 대상물이 있어야하며 또 비평할수있는 능력있는 평론가가 필요한데 이조건이 모두 미숙한단계에있다는것이다. 이와함께 평론을 받아들이는 건축계의 자세도 지적됐다.

다섯째는 시공학적문제로, 재래공법에 安住하려는 기성인의 나태가 지적됐으며 건설공사에있어 고도의 기술개발도 거론됐다.

【丁肅기자】

◇서울의 하늘을 가리고있는 고층콘크리트 건물群. 인간다운 삶의배려가 돼있지않아 메마른 서울을 한층 황폐하게 만들고있다.

理論 哲學확립·大學교육과정 개편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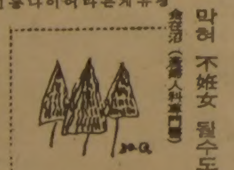
健康진단 〈人工流產〉
卵管 막혀 不姙女 될수도

俞守沼(高麗大醫大產婦人科敎授)

可姙여성 한명이 평균2·1회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는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율인데 최근에 와서는 도시여성보다 농촌부인들사이에서 더 성행하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한 보고서에선 농촌부인중에 최고 26번의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이 있을 정도라고, 서울의 기혼여성 80%가 중절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 성이 문란하고 개방적풍조가 범람함에 따라 부인이 아닌 미혼여성들의 증가되는 사정이 인공중절에 더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공중절을 「긁어버린다」 혹은 「떼어버린다」하는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는 여성이 적지않은데, 무분별한 인공중절은 자칫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유발한다는것을 강조해두고싶다. 엄밀히 보아 중절수술은 간단하고 확실한 수술이지만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게 아니라 손의 감으로 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자궁벽을 뚫어먹게도 하고 자궁에 구멍을 낼 염려도 있다. 뿐만아니라 나중엔 염증도 생기고 뱃속에 癒着도 생기며 자궁외 임신, 혹은 卵管이 메워져 다음부터는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증에 빠지는 수도 있다.

또 기타 여러가지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이 보고되고있다. 그러면 만부득 인공유산이 필요할때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할때엔 그 대답은 「사전에 신뢰할수 있는 의사를 선정해서 충분한 진찰을 받아야 하는것」 이밖에 없다.



三國志 (180)
글·高羽榮·그림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 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King St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週刊漫畫

"여보, 전화" "지금 집에 없다고만 전해줘요."　"죄송하지만, 지금 집에 없는데요"　"믿지 못하겠어요."　"댁에선 아내말을 의심하는 거요?!"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優秀영화 기준이 달라졌다

日本소설盜用등 독창성 결여

영화제작사의 外畵수입권을 가름하는 優秀映畵의 개념이 달라져가고 있다。文藝物에 우선됐던것이 올들어 통속멜러물·괴기물·액션물에도 우수영화의「영예」가 주어지고 있다。81년상반기에 우수영화로 선정된 30편을 분석해보면, 통속멜러물18편, 하이틴물 4편, 괴기물3편, 코미디물2편, 액션·전쟁·문예물이 각1편씩이다。

그리고 20개영화사 가운데 10개사가 상반기에 2편의 우수영화를 제작, 外畵수입권을 얻었고, 10개사는 각각 1편씩의 우수영화를 만들었다。그러나 상반기우수영화 30편가운데는 우수영화의 定義와거리가먼 작품도 들어있다。「外畵수입권배급제도」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수영화제도의 목적인 영화예술발전에 역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우수영화란「예술성을지니고, 많은 사람이 보고즐길수 있으며 관객들에게감명을주고 사회의 제도성과 교양성을 갖춘 독창적인작품을 말한다(文公部81년도 映畵施策)。이같은 우수영화의 정의는 퍽 광범위한 것이지만 특히 예술성·계도성·독창성이 강조돼왔다。그러나 올 상반기의 우수영화가운데는 예술성이나 독창성이 결여된 작품들도 눈에띈다。日本작가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2편은 독창성을 잃은것이고 코미디·괴기물 가운데는 예술성도 없고 아무런 감명을 주지못하는것도있다。또『이것도 영화냐』는 관객들의 혀차는 말을 듣는 엉성한 영화도 눈에띈다。

상반기중 검열을 통과한 41편가운데 70%가넘는 30편이 우수영화로 선정됐다는것은 얼핏「좋은영화」가 쏟아져나온것으로 보일수있다。

그러나 상반기의 우수영화는 좋은 영화라기보다는 제작사의 희망(우수영화신청)에 따라 外畵수입의 티킷을 나누어준 결과가되고있다。영화예술의 우수성에 관계없이 外畵수입권을 안배한 인상이 짙다。

이처럼 우수영화의 개념이 달라진것에대해 公倫의 한 관계자는『영화계가 불황에 허덕이고있는만큼 숨통을 터주고 있다』고 말한다。검열위원金基憲씨는『전엔 文藝物을 우선으로 선정했고 코미디·괴기물은 우수영화로 생각도못했다。올해는 즐거움을주는 오락물이나 기술면에서 향상된 괴기물, 주제가강한 멜러물은 우수영화로 선정하는 등 기존 검열기준에 약간의 융통성을 두고있다』고 전한다。

우수영화는 심의에서 80점이상을 받은 영화다。또 75~79점이면 재심을 신청할수있다。재심작품은 부분수정이나 삭제로 거의우수영화의 관문을 통과한다。종합예술인 영화를점수로 평가하는 우수영화제도앞에 감독은 수험생이되고있는것이다。

무겁고 딱딱한 내용의문예물만이 우수영화가 될수는없다。한편 예술성이 도외시된 작품을「좋은영화」로 선정하는 것도 영화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해외演藝

청순한 이미지남긴 사운드 오브 뮤직 主役

앤드루즈孃「토플리스」出演

男便작품… 대담한 포즈위해 强心劑맞아

「메리 포핀스」「사운드 오브 뮤직」등에서 청순한이미지와 차분한 연기로 호평을 받았던 줄리·앤드루즈가 연기생활 처음으로 가슴을활짝 열어젖히는등 대담한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 화제가 되고 있다。남편 블레이크·에드워드가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한 영화「SOB」·(Standard Operational Bs의 약어)에 출연한것이다。「SOB」는 할리우드의 내면을 그린 필름。에드워드가 10년전부터 준비한 코미디영화지만 이번 출연은 완전히 앤드루즈의 선택에 의한것。지난 74년「타마린드 씨앗」이후 영화출연이 없었던 그는 그사이에 2배50[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外紙에서】

張吉山 (1612)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72)

『재인말은 인젠 집터도 다 없어졌더라。나무 밖엔 낯익은 것이 없다』

『탑고개나 한번 나가볼까』

대성법주가 중얼거렸고, 옥여가 말하였다。

『거진 뭣허러…산성에 군졸들이 나와 번을 선다는데』

『내야 뭐, 행색이 중이라…먼발치서 보구 오지』

다른 이들은 알리가 없건마는 길산과 옥여는 그가 탑고개로 뭣하러 가려는지 짐작할수가 있었다。[illegible] 너머 위에 있는 그의 모친의 산소를 찾아 보려는 것이겠고, 또한 그는 아내 도화를 바로그 자리에서 찔러죽였던것이다。옥여는 혼잣말 비슷이 중얼거렸다。

『개천이 이래루 흘러두 갈래는 다른 법이어든 옛터를 보면 무얼 할꼬…』

길산과 법주는 나란히 누워 새벽이 될때까지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었다。그들은 활빈행에 관한 것들을 묻고 답하였으며, 여염의 생활에 대하여는 길산이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법주가 잠에 떨어지고 길산은 여러 생각으로 몸을 뒤척였다。북풍에 먼지 바람이 일어 모래알이 산지사방으로 날리듯, 그와 혈육 같던 사람들의 정겨운 사연들은 모두 하나 둘씩 사라지고 말았다。다만 가슴 귀퉁이에 그런 기억들이 금싸라기나 유리 먼지처럼 몇 낱씩 붙어있어, 말 끝의 침묵 가운데서 은은히 반짝거릴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공양을 끝내고나서 오진암으로 오르려할 즈음에 한발 먼저 해주의 묘정 수좌와 뒤이어 박대근이 당도하였다。박대근과 길산은 금천 조읍포의 접탈이래로 처음만난 것이지만, 대성법주가 되어버린 이갑송과는 실로 몇해만이라 오히려 박대근쪽에서 눈물이 글썽하였다。대성법주는 반기는 안색이면서도 대근에게는 승속의 예를 고집하였다。

『소승 문안이오』

『이서방하구 헤어진 것이 탑고개였으니 벌써 네해가 지났구려』

『그렇지요。법명은 대성법주라, 산문에 든 비구이니 속명은 부르지 마시오』

『허허 그러십시다』

그러나 길산은 못내 예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

『원래 승속을 가릴적에 혈육이나 동무를 만나도 궁생으로 일반 대하는것은, 그 생각과 뜻이 다름에 있지。이제 여기 큰스님이 통문에 따라 모셨으니 승속이 동참하자는게 아닌가。법주 수좌는 아무리 출가승이라하나 예전 내동무요 대근이 성님의 의제다』

법주는 문득 고개를 갸웃하더니 가사를 펼치고 일어났다。

『제가 모자랐읍니다。성님, 아우 절 받으슈』

박대근의 글썽한 눈에서 물기가 비치며 그제사 마음놓고 법주의 손을 덥석잡았다。

『그만 그만 되었오。이젠 내 마음이 후련하오』

『송도는 별일이 없지요?』

길산이 물었고 박대근은 유쾌하게 말하였다。

『좋은 일이 있소。인제 송상은 판도가 바뀌게 될거요。인삼 재배에 성공했소이다。올해 그 첫 수확이 나올게요』

『삶을 밭에서 거둔단 말인가요?』

『그렇지。청과 왜에 얼마든지 팔수있으니 이제는 은자가 필요없게 되었오』

길산이 말하였다。

『성님, 큰일을 해냈소이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SEIWL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25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달러
☎ : 532-3637 미스타 게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8-0910 피터

입주하셔서 베이비 씨터 하실분 구함
☎ : 763-7450 미세스 김

남녀 초저녁 청소하실분
☎ : 977-1110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학생 헬퍼 구함
☎ : 267-4770

일본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CALL MANAGER(오후3시~6시 연락)
☎ : 977-9519
MASA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매매및 양도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천8백불, 권리금 3만3천
☎ : 423-9899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61 MAIN ST. 편의한 문의는 직접 내방 바람.
☎ : 694-7848

빌딩과 비즈네스 매매
다운타운 지역
☎ : 368-5980, 633-0529

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한 주택매매및 전세 :
Lakeshore & Royal York Rd.근처 Central Aircon., 4 Rms, Rec. Rm. ☎ : 255-6849, 368-901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가게 급매 : 주매상 $4,500, 윗층에 3베드룸 있음
가장 적당한 OFFER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HAMBURGER PLACE FOR SALE
중심가에 위치, 긴 기간의 리스 완전 장비된 큰 주차장이 있음, 주매상 $6,500
☎ : 741-9170 MRS. WOO A. E. LEPAGE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SET UP하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 461-9236 JACK PONG

그로서리 및 야채가게 매매 :
주매상 $7,000~$8,000(5일영업)
리스 4½년+5년 옵션, 렌트 $1,200(2500sq. 피트)
자본이 있고 경험있으면 더 높은 이윤및 매상가능
☎ : 368-1917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고급 BEDROOM SET급매 :
경대, 옷장, 2 NIGHT테불(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 769-4366(오후5시이후)

CONVENIANCE STORE IN BUSY PLAZA
(ST. CLAIR E. X 버치마운트)
ASKING $69,000, 리스8년6개월, 주매상 6,500이상
HELLENIC REALTY
☎ : 766-9968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 몬트리올 100% 영어지역
BEER, WINE, CIDER, 유럽피안, 캐네디안 그로서리 취급 주매상 $3700, 주6½일 OPEN, 렌트 $375, 12년(리스+옵션), ASKING $29500+스탁
연락처 : 1-514-484-2071(몬트리올)
530-1012(토론토)

FISH & CHIPS스토아 매매
오랫동안 잘 경영해온 비즈네스 매매코자 합니다
(가게+현대형 아파트)
모개지가 좋고 비지네스 시작하자 곧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읍니다. 파는 사람이 새로운 경영자를 위해 도움을 줄것입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 : 751-7333
GOHEEN REALTY LTD., REALTOR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기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테리
(2 DZ 지렁이를 사면, 1 DZ지렁이 Free)
630 QUEEN ST. E.
☎ : 463-4997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미·김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웅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리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커트, 파마 전문, 9시~오후8시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외과)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백영수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이삿짐 나 라 운 수
피아노, 쿨러 ☎ : 630-6602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86-5655 531-5440 이 황 영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일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참 섭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All Languages Service
"Helping People to Communicate"
ALS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over 70 Languages
French for the Quebec Market
Suite 1105, 67 Yonge St., Toronto, Ont. M5E 1J8 361-0303